

西洋 軍服의 變遷過程에 관한 研究

한 순 자 · 이 순 홍*

경원전문대학 생활과학과 교수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History of the Western Military Costume

Soon-Ja Han and Soon-Hong Lee*

Dept. of Human Life Science, Kyungwon Colleg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costume originated from the idea that it could protect human beings from ferocious beasts. The military costume was from protection against an enemy equipped with weapons.

Furthermore, the makers of the costume were afraid of supernatural powers and it made them devise an armour and decorate it by the concept of superstition for the purpose of overcoming it. The function of military uniform was important for increasing the protection against any enemies while they join in battle. However in harmonious time, it represented artwork of peace, dignity, and order.

Since the uniform was a kind of symbol to show their position, and their role. They could feel proud as a member of a military group they belong to and they gain honor, courage, patriotic sentiment through their military costum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originality the military costume as it changed and developed continuously from ancient Egypt, Greece and Rome to modern tim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show the comparison and characteristic marks of the past, and the influence of them on the modern military uniform.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was using past manuscripts of the early times, information attained from domestic and foreign military documents and previously written reports.

As a result, the military costume was one of many means of expression of their natural and social environment. It can be said that the most epoche-marking and powerful changes to the social environment are revolution or war.

War absolutely has influenced on the changes of costume and the military armour according to the type of war and the development of weapons. Especially using the amour, the main purpose that of protecting the body has changed into distinguishing our forces from the enemy and instilling fear into the enemy. Furthermore, the class who has the power has used it in order to express their power and dignity. Therefore, armour had required two rules to not only protect the body but also discriminating between classes.

Key words: military costume(군복식), armour(갑옷), weapons(무기), protector(방어), decorate(장식).

I. 서론

社會的 環境 變化 중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強力한 變化的 요소는 革命이나 戰爭이라고 볼 수 있다. 革命은 한 국가 내의 사건이지만 戰爭은 當事國과 주변國, 더 나아가서는 世界的인 範圍까지 영향을 준다. 戰爭은 敵과 自然 環境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武器와 戰術의 발전을 가져오며 軍服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반복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軍服은 身體를 防護하는 것이 主目的이지만 戰場에서 敵과 我軍을 識別하고, 敵을 위압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며¹⁾, 계급과 위엄을 表現하므로 身體의 保護와 더불어 부수적인 目的으로도 활용된다.

그러므로 軍服은 전투 시에는 전투력을 증진하기 위한 機能性이 단연 중요시되지만 平時나 日常的으로 전투를 위한 訓練이나 準備하는 과정에서는 과시와 위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裝飾性이 강하게 요구된다.

특히 制服으로써의 軍服은 對外的으로 소속, 계급, 역할 등 여러 가지 상징적인 意味를 가지고 있으므로²⁾ 軍服을 통해서 집단 구성원간에 정신적인 단결심을 배양하고 어느 단체의 일원이라는 자랑스러운 감정과 용기, 명예심, 애국심 등을 느끼게 한다. 결과적으로 軍服은 자연환경과 사회적 환경의 가장 보편적이고 총체적인 集合體라고 할 수 있다.

現代의 制服 개념인 統一된 軍服은 상비군이 생기면서 시작되었다³⁾. 이때 軍服은 대규모 집단의 체제를 갖추고 전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군대의 조직과 무기의 체계, 그리고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활동하기 좋고 병사들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특수한 服飾으로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따라서 本 研究의 목적은 古代에서 現代까지 戰場이라는 특수한 環境에서 전투를 하면서 끊임없이 變化, 發展되어온 軍服을 그 起源과 變遷過程을 考察하여 軍服의 歷史的 體系를 정리하고 각 시대의

特徵을 연구하여 앞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軍服의 가치를 考察해 보고자 하였다.

研究 範圍는 古代에서 現代에 이르는 西洋 軍服의 전투복을 中心으로 軍服의 起源과 變遷過程을 時代的으로 區分하여 살펴보았다. 각 시대는 西洋服飾史的인 側面과 軍服의 特徵에 따라서 古代, 中世, 近世, 近代, 現代로 區分하여 調査하였다.

研究 方法은 文獻 調査 方法으로 服飾 및 軍事 관련 문헌과 國內外에서 이루어진 先行研究, 專門書籍 등을 參考하였고, 本 研究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國內外 軍史博物館 資料를 中心으로 考察하였다.

II. 군복의 기원과 변천

軍服의 起源은 초기의 人類가 신체의 보호와 脆弱한 防禦力을 보충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여러 가지 자연물을 사용하여 保護幕을 만들어 猛獸 또는 敵對的인 상대의 武器로부터 자신을 保護하였다.

한편, 超自然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주술적인 概念으로 威壓的인 效果를 내도록 치장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군복은 防護的인 면과 藝術的인 면까지 着眼하여 製作하기 시작하였다⁴⁾.

1. 고대

1) 이집트

古代 國家 중에서 메소포타미아와 그리스는 軍人 階級이 있었으나 이집트를 비롯한 그 외의 國家는 軍人 階級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집트는 軍人 階級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戰爭이 나면 王을 비롯하여 貴族, 平民, 奴隸 등 거의 모든 남자들이 戰場에 나갔다⁵⁾. 이집트 군복은 시대와 계급에 따라서 착용상태의 차이가 있었으나 기본 전투 복식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로인클로스(loincloth)와 킬트(kilt), T자형 튜닉 등이 있었다.

고은 防禦와 權威를 나타내기 위하여 威嚴이 갖

1) Alison Lurie, 유대순 역, *의복의 언어*, (서울: 경춘사, 1986), p.17.

2) Lawrence Langaer, 박동준 역, *服裝의 心理*, (서울: 유신문화사, 1992), p.67.

3) 버나드 로 몽고메리 지, 송영조 역, *전쟁의 역사*, (서울: 책세상, 1999), p.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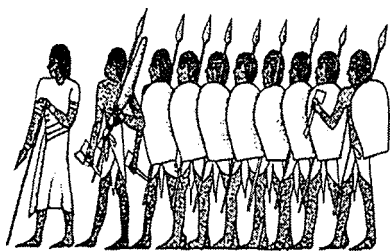
4) Arther Ferrill, 이춘근 역, *전쟁의 기원*, (서울: 도서출판 인간사랑, 1990), p.33.

5) 여승은, “사회계층별 복식에 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p.71.



<그림 1> B. C. 14세기 전쟁중인 왕
(고대 이집트, p.37)

추어진 軍服을 착용하였다. <그림 1>은 투탕카멘(Tutankhamen, B. C. 1361~1352년)왕 무덤의 浮彫로 왕은 전차를 타고 짧은 소매가 달린 비늘 모양의 갑옷과 하트모양으로 주름이 많이 잡힌 셴도트(shendot)를 입었고 뱀을 장식한 청색의 투구를 쓰고, 긴 자루의 도끼와 楷棒을 들고, 허리에는 금속 벨트를 하고 뒤로는 사자꼬리를 늘어뜨렸으며 신발은 앞이 올라간 샌들을 신었다⁶⁾. 貴族들은 느슨한 튜닉(tunic), 칼라시리스(kalasiris), 일종의 재킷 또는 갑옷을 입었다. 일반 병사들은 <그림 2>와 같이 무거운 갑옷 대신에 가장 간단한 형태의 흰색의 아마 織物로 만든 로인클로스를 입고 上衣는 착용하지 않았으며 나무로 만든 큰 방패로 몸을 보호하였고 도끼로 무장하



<그림 2> 이집트 고대 중기 보병의 행군
(전쟁의 의 기원, p.68)

었다. 머리에도 대체로 투구(helmet)도 쓰지 않았다⁷⁾. 이것은 軍服이라기보다 平常服을 입은 채 무기만 들고 戰場에 나가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⁸⁾. 그러나 중왕국 이후에는 서아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재료, 형태, 색상이 다양해졌으며 로인클로스로 채색된 옷감을 사용하였고 가죽벨트와 가죽 에이프런과 동일한 형태로 두겹게 만들어서 방어력을 높였다. 신왕국 시기에는 서아시아의 영향으로 말이 끄는 戰車를 사용하여 군사력이 강화되었으며 전차병과 궁수는 두 손을 자유롭게 써야 하므로 쇠비늘 갑옷과 투구를 착용하였으며 이때의 쇠비늘 갑옷은 작은 쇠조각들로 만들어서 유연성이 있고 가벼웠다. 그러나 高價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 손이 자유로워야 하는 전차병들만 입을 수 있었다. 중왕국 시기까지는 투구가 없었고, 머리는 가발이나 두꺼운 옷감으로 전쟁용 모자를 만들어서 보호하였으나 신왕국 시기부터는 일반 병사들도 갑옷과 투구를 사용하였다. 투구는 흔히 정교한 장식이 되어 있으며 목 부분까지 쇠조각을 입힌 가죽 목 깃으로 보호하였다⁹⁾.

2)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지역은 開放的인 地形狀 끊임없는 戰鬪가 일어났다. 그 결과 다양한 種族과 國家가 浮沈하면서 일찍부터 機能的이고 多樣한 軍服이 발달하였다. 戰士들은 基本服飾으로 튜닉, 바지, 캔디스(candys)를 입었다. 특히 이 지역의 군복은 오리엔트에서 처음 철기를 사용한 히타이트(hittite)족의 傳來로 금속 갑옷이 입혀졌는데 최초의 금속갑옷은 쇠비늘 갑옷으로 원형의 작은 금속 조각을 붙여 만든 것이었다¹⁰⁾. 특히 好戰的인 아시리아는 초기 수메르인(Sumerian)의 基本服飾을 改善하여 금속을 이용한 보호갑옷으로 쇠비늘 갑옷(scale armour)의 起源을 만들었다¹¹⁾. 그 형태는 짧은 소매의 튜닉 위에 갑옷을 입고, 넓은 허리 보호용 띠를 둘렀으며 왼쪽어깨에서 오른 팔 밑에 걸쳐 수대를 매고 투구를 썼다. 투구는

6) Margot Lister, *Cotume* (London: Barrie & Jenkins, 1977),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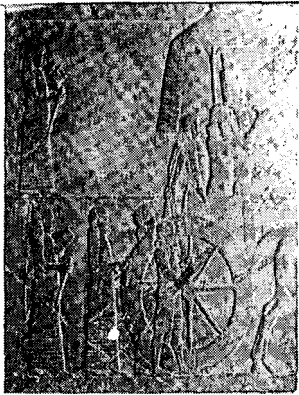
7) 조지 하트, 채수홍 역, *고대 이집트* (서울: 웅진미디어, 1998), p.37.

8) François Boucher, *2000 year of Fashion* (New York: Harry N. Abrams, 1987), p.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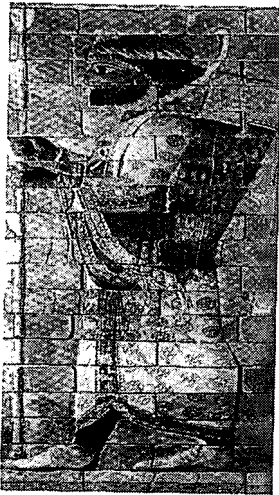
9) 버나드 로 몽고메리, 앞의 책, p.67.

10) J. Anderson Black & Madge Garland, 윤길순 역, *세계패션사 I* (서울: 자작야카데미, 1997), p.21

11) 버나드 로 몽고메리, 앞의 책, p.57.



<그림 3> B. C. 7세기, 아시리아 전차병, 궁수
(전쟁의 기원, p.96)



<그림 4> B. C. 4세기, 페르시아 궁전 호위병
(20000 Years of fashion, p.64)

금속과 가죽을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圓錐形이고 戰鬥用 샌들과 부츠를 함께 신었다(그림 3). 갑옷의 재료는 구리, 청동, 철 등으로 이 같은 재료들은 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햇빛에 반사되어 상대방에게 위협을 준다고 믿었다¹²⁾. 페르시아 군복은 바지(brac-

co)와 소매가 달린 통형 튜닉으로 병사들은 로보(robo) 형식의 헐렁한 소매의 다양한 색과 문양의 넓은 캔디스(candys)를 특히 즐겨 입었다. 캔디스는 점차 화려한 장식과 자수를 하였으며 이는 후에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 유럽에 전해져 유행하게 되었다¹³⁾. 허리에는 넓은 벨트를 하고 소지품을 넣는 주머니와 칼을 찼다. 머리에는 터번 형태의 두건이나 帽子和 반원형의 투구를 쓰기도 하였다. 신발은 굽이 달리고 부츠 형태로 된 것을 신었다(그림 4)¹⁴⁾.

3) 그리스

그리스는 軍制가 확실하고 軍人은 貴族階級으로 階級과 兵科에 따라서 戰鬥에 效率인 軍服을 입었다. 軍人들의 무장은 갑옷과 투구, 방패, 정강이 보호대(shin-guard), 코 보호대(nose-guard), 신발 등이었다¹⁵⁾.

그리스 軍服은 <그림 5>와 같이 가슴보호용 갑옷은 강철판을 각 사람의 신체 치수에 맞추어 앞·뒤 판을 몸에 잘 맞도록 하였으며 가죽끈으로 옆에서 묶었다. 투구는 말머리 형태로 말 털 장식과 머리 전체를 둘러싼 특별한 형태로 만들었는데 앞부분에는 창이 없고 머리 뒤쪽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창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독창적이고 외관이 두드러져



<그림 5> B. C. 7세기 武裝을 받는 용사
(전쟁의 역사, p.86)

12)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9), p.36.

13) 최영숙, "軍服飾에 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66.

14) L. 윌런드 원 저, 김광식 역, 성서의 세계, (서울: 웅진미디어, 1998), p.47.

15) Blanche Payne, 이종남 외 역, 복식의 역사 (서울: 까치, 1994), p.87.

보여 강하고 아름답게 보였으며 아테네(Athene)식은 코 가리개가 없고 전형적인 그리스 식인 코린트(Corinth)식은 코와 뺨을 감싸주는 형태였다¹⁶⁾. 정강이 보호대는 歩兵들은 창등으로 만들었고 기병들은 모직으로 된 각반을 이용하여 전투 중에 다리 아랫부분을 보호하였다¹⁷⁾. 신발은 대개 부츠형으로 장만지까지 올라왔으며 끈을 엮어 매거나 샌들처럼 가죽 끈을 묶기도 하였다. 갑옷 속에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페플로스(peplos)를 입었고, 클라미스(chlamys)는 모든 軍人들이 계급과 병과에 따라서 다양하게 입었으며 점차 동양의 영향을 받아 염색과 많은 장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왕실 예복이 되었다. 그 예로, 알렉산더는 전투 복장으로 장식이 화려한 보라색의 클라미스를 입었다¹⁸⁾. 初期의 防牌은 왼쪽어깨에 매달아 온몸을 보호하였으나 안쪽에 손잡이가 달린 약간 작은 金屬 防牌이 보급되면서 身體保護用 가슴 가리개나 허리띠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또 防牌에 그림으로 所屬이나 團體를 나타내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눈과 입 부위만 보이는 투구 형태로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도 防牌로서 쉽게 구별할 수가 있었다(그림 6).

4) 로마



<그림 6> B. C. 6세기, 그리스 중무장보병
(전쟁의 역사, p.114)

로마의 군대는 市民兵으로 大軍團을 形成하였고 로마 시민만이 市民兵이 될 수 있었으므로 군인은 自身의 신분을 자랑스러워 하였다. 이들은 각자가 자신의 武器와 갑옷을 준비하였는데 튜니카(tunica)를 着用하고 그 위에 또 토가(toga)나 팔루다멘툼(paludamentum)을 着用하였다.

로마의 軍服은 B. C. 4세기경부터 짧은 튜닉 위에 금속판의 가슴 가리개와 등받이로 된 胴體 갑옷(cuirass)이었다(그림 7). 胴體 갑옷은 다양한 형태가



<그림 7> B. C. 4세기 가죽과 금속갑옷
(20000 Years of fashion, p.117)



<그림 8> 로마제정시대의 황제 근위병
(전쟁의 역사, p.160)

16) 앤 피어슨, 김동광 역, *비주얼 박물관 고대 그리스*(서울: 웅진미디어, 1998), p.55.

17) Blanche Payne, 이종남 외 역, 앞의 책, p.87.

18) J. Anderson Black & Madge Garland, 윤길순 역, *세계패션사 I*, (서울: 자작아카데미, 1997), p.21.

있었으며 로마 군인들이 고울족과 접촉하면서 추위에 필요한 장단지 길이의 바지를 입기 시작하였다¹⁹⁾.
²⁰⁾ 바지는 히타이트 족의 裝甲步兵들이 입었던 것과 유사한 페리조마(perizoma)라는 좁은 형태였고 목과 뺨을 보호하는 둥근 헬멧을 썼다.

共和政時代의 갑옷은 가죽을 겹쳐서 만들거나 따로 떨어진 2장의 黃銅판으로 만들거나 작은 금속판으로 上體를 감싸는 형태였다. 槍騎兵들은 쇠비늘 갑옷 코트를 입었는데 이 쇠비늘 갑옷은 값이 비쌌고 대단히 높이 評價받는 물건으로 帝政時代까지 계속 착용되었다²¹⁾.

帝政時代의 갑옷은 로리카(lorica)(그림 8)라는 가슴을 보호하는 두개의 큰 금속판을 어깨위로 철로 된 긴 밴드가 연결하고 허리를 둘러싼 형태였다. 皇帝와 高級 官吏들은 指揮官의 象徵으로 허리에 스킵프 같은 것을 묶었는데²²⁾ 武器 이외의 裝備을 附着하거나 階級을 區別하기 위하여 버클이 있는 부드러운 가죽의 넓은 벨트를 하거나 금속판이 달린 벨트한 가죽 벨트를 하였다. 한편 갑옷으로 보호할 수 없는 부분을 위하여 가죽끈이 있는 앞 가리개를 벨트에 부착한 것도 있었다. 또한 군대의 駐屯 地域이 넓어지면서 兵士들은 대퇴부를 덮는 반바지 형태의 페미니알리아(feminalia)라는 바지를 착용하였다. 헬멧은 긴 깃털 장식이 달린 靑銅 헬멧, 또는 갈색의 말머리형 깃털 장식의 헬멧, 깃털이 없고 이마와 뺨을 보호하고 뒤 목부분에 목을 보호하는 것이 붙어 있는 헬멧 등 여러 가지 形態가 있었다. 또 防牌을 사용하였고 防牌의 무늬는 所屬團體를 나타내는데 쓰였다. 그 후 로마시대에는 이러한 복식이 병사들의 복식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때 裝甲步兵(hoplite)은 富裕層으로 구성되어 靑銅 투구와 방패, 가슴 보호대, 정강이 보호대, 창과 칼로 무장하였다.

2. 중 세

1) 중세 초기

中世 初期의 유럽은 각 민족에 따라 固有한 복식이 있었으나 北方 民族의 基本服飾이 軍服으로 개선되었다. 유럽 초기에 軍服이 있었던 代表的인 종족으로는 고울(Gaul)족, 프랑크(Frank)족, 노르만(Norman)족, 비잔틴(Byzantine)이 있었다. 대체로 튜닉, 바지, 맨틀(mantle)형의 외투와 소매 없이 간편하게 만들어 가죽 안을 댄 긴 조끼모양의 튜닉인 콜로비움(colobium) 등이 있었다.

고울족은 두꺼운 펠트 직물로 가슴과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간편하고 機能的인 복식 형태였으며 쇠사슬 갑옷에 허리 벨트를 하고 투구는 原始的인 가죽 캡(cap)이 발달된 콘형(cone), 돔형(dome), 미트르(mitre)형 등 금속만으로 된 것과 가죽에 금속을 씌운 것 등으로 다양하게 만들었으며 그 모양들은 中世의 다양한 헬멧 모양의 起源이 되었다²³⁾. 靑銅으로 만든 다리보호대와 레깅스(leggings)라는 각반을 착용하였다.

프랑크족은 7세기경 프랑크 王國인 메로빙 시대(Méroving, 481~751년)까지도 國家의인 힘이 약하고 野蠻的이었으나 프랑크의 메로빙인들은 6세기 후반부터 富裕한 兵士들은 金屬 갑옷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금속 갑옷은 쇠비늘이 붙은 소매 달린 튜닉 種類 혹은 金屬板이 달린 천 조끼 형태였고 保溫性이 좋은 튜닉과 바지, 어깨를 덮는 짧은 외투가 있었다. 튜닉 위에 가죽이나 뿔로 덮인 조끼 형태의 胴體 갑옷을 입고 이는 코이프(coif)에 연결되었다. 벨트는 무기와 다른 附屬品을 裝着시킬 수 있으며 화려하게 장식된 버클이 달린 가죽 벨트였다. 다리는 호즈(hose)나 삭스(socks)로 감쌌으나 점차 금속 정강이 보호대로 바뀌고 반부츠를 신었다.

노르만족은 8세기경 서유럽을 처음 奇襲을 하였을 때 주된 掠奪 目的은 武器와 갑옷을 빼앗는 것이었다²⁴⁾. 이 때 전사들은 갑옷과 정강이 가리개도 하지 않았으며, 다리를 亞麻布나 가죽끈으로 감쌌을 뿐이었다. 투구는 뿔이 달린 형태로 꼭대기가 둥글며

19) François Boucher, *op. cit.*, p.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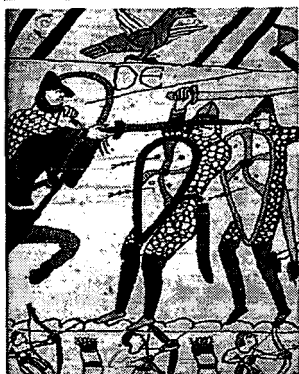
20) 신상욱, 앞의 책, p.46.

21) 버나드 로 몽고메리, 앞의 책, p.182.

22) François Boucher, *op. cit.*, p.127.

23) 백영자 외,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경춘사, 1994), p.175.

24) 수산 M. 매거선, 책이랑 편집, 바이킹 (서울: 웅진미디어, 1998), p.13.



〈그림 9〉 11세기 노르만 복장
(Arms & Armour of Medieval Knight, p.31)

앞부분이 튀어나왔으며 목덜미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9세기 中葉까지 상당수의 무기와 갑옷을 蓄積하였고 製造技術까지 習得하여 모든 전사들은 긴 쇠사슬 갑옷을 입게 되었다. 그들의 갑옷은 프랑크의 갑옷과 흡사하였으나 투구가 뾰족하며 코 보호대가 달려 있었다. 방패는 처음에는 나무를 이용하고 圓形이었지만 전신을 防禦하기에 有利하도록 나중에는 연(鳶) 모양으로 길게 바뀌고 밝은 색이 칠해졌다(그림 9)²⁵⁾. 지체가 높은 사람들은 창에 조그만 깃발을 달아서 身分을 表示하였다^{26,27)}.

노르만 족은 北方民族이지만 바지가 넉넉한 형태로 활동하기에 편리하였으며 보온용 외투를 활용하여 機能性이 좋은 戰鬪服을 갖추었다. 9세기경에는 린넨 속바지를 입었고 11세기까지는 오래된 형태의 브레와 같은 짧은 바지들이나 긴 바지들을 입었으며 남자들은 항상 바깥쪽으로 털이 있는 동물 가죽의 外套인 레노(rhino)를 입었다²⁸⁾.

비잔틴은 중세 초기에 唯一하게 效率적이고 強力한 職業的인 軍隊를 가지고 있었다. 로마의 傳統과 周邊 아랍인들과의 鬭爭을 통하여 전쟁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다. 이때 사슬 갑옷은 아랍 세계로부터 流入된 것으로 로마군이 사용하던 그리스 식 철판 갑옷과는 전혀 다르게 생긴 것으로 작은 쇠고리를 촘촘하게 연결하여 만든 것이었다²⁹⁾. 이것이 그대로 유럽 대륙으로 전해짐으로서 중세 중기에 板金 갑옷이 出現할 때까지 유럽 갑옷의 典型이 되었다³⁰⁾.

비잔틴 제국말기 重裝騎兵³¹⁾은 地上軍의 主力部隊로서 목에서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긴 쇠사슬 갑옷을 입었고, 중간 크기의 圓形 防牌, 술로 장식한 금속 모자, 목이 긴 장갑과 강철 신발로 몸을 보호하였다. 將校 및 先頭隊列의 말 또한 강철로 만든 가슴가리개로 몸을 보호하였고 날씨가 무더울 때 병사들은 갑옷 위에 가벼운 亞麻布 겉옷을 입었으며 추울 때는 毛織 外套를 입었다³²⁾. 輕裝步兵의 弓手는 간혹 소매 없는 쇠사슬 갑옷을 입었지만 대개는 略式 상의에 튼튼한 長靴을 신었고 重裝步兵은 소매 없는 쇠사슬 갑옷과 커다란 圓形 防牌, 가죽이나 쇠로 만든 목이 긴 장갑(gauntlet), 정강이 가리개, 술이 달린 뾰족한 강철 투구로 몸을 보호하였다³³⁾.

騎兵들이 말과 갑옷 등 裝備를 갖추려면 富裕해야 했으며 점차 기병들이 增加하자 기사들은 갑옷과 그 위에 입는 겉옷으로, 槍騎兵은 창에다 매어 다는 깃발과 투구의 裝飾術 등으로 자신들의 위엄을 갖추었고 각 部隊에 따라 독특한 색깔을 지니기도 하였다³⁴⁾.

中世 初, 中期의 가장 代表的인 전쟁은 十字軍 遠征으로 各國의 王과 貴族들은 비싼 사슬 갑옷과華麗한 衣裳으로 治裝을 하였지만 卑賤한 階級 出身의

25) David Edge & John Miles Paddock, *Medieval Knight* (London: Bison Group, 1988), p.11.

26) Blanche Payne, *op. cit.*, p.182.

27) 마셜 바이엄, 김애지 역, *비주얼 박물관 무기와 갑옷* (서울: 웅진미디어, 1998) p.15.

28) 초기의 cape로 동물가죽으로 만든 외투로 따뜻할 때는 가죽을 안으로 하여 입고 추울 때는 거꾸로 뒤집어 입을

29) 동양의 쇠사슬 갑옷은 이음매가 없이 단단한 고리를 연결하여 만들었고, 유럽의 쇠사슬 갑옷은 보통 고리의 끝을 두들겨 평평하게 펴서 대갈 못으로 연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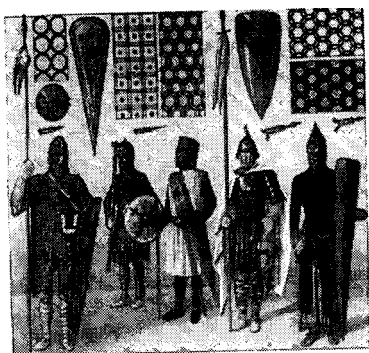
30) 버나드 로 몽고메리, 앞의 책, p.273.

31) 무기와 갑옷을 완전하게 갖춘 기병.

32) David Edge & John Miles Paddock, *op. cit.*, p.49.

33) 버나드 로 몽고메리, 앞의 책, p.273.

34) 위의 책, p.220.



〈그림 10〉 9~13세기 프랑스 기사복장
(History of Western Costume,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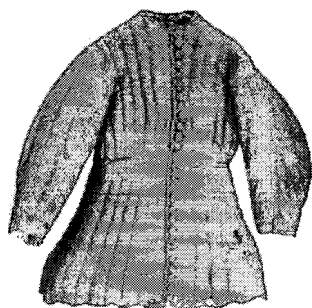
병사들은 스스로 갖춘 각각각색의 武器와 服裝으로 十字軍 遠征 初期의 유럽군대는 軍服의 形態를 갖추지 못하였다(그림 10).

비잔틴은 東洋式 쇠사슬 갑옷을 유입하였고 騎兵의 機動力과 戰鬥力을 유럽에 전했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中世 中·後期 軍服史上 매우 獨特한 軍服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목에서 허벅지까지 오는 긴 쇠사슬 갑옷을 입었고 중간 크기의 원형 방패, 솔로 장식한 금속모자, 목이 긴 장갑과 강철 신발로 몸을 보호하였다.

2) 중세 중·후기

中世 中·後期 軍服史의 특징은 封建制度와 騎兵 중심의 전쟁을 하면서 軍服은 騎士들의 家門과 威嚴을 나타내기 위하여 치장되었고 武器에 대응하여 금속 갑옷이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中世의 금속 갑옷은 騎兵의 戰鬥用 갑옷뿐만 아니라 身分의 表現으로 사용하였다³⁵⁾.

中世 中期는 十字軍 遠征의 결과 軍服이 매우 발달하여 갑옷이 인체의 윤곽을 나타내는 금속판 갑옷이 되면서 갑옷 속에도 몸에 꼭 맞는 옷이 필요하게 되었다. 금속 갑옷에는 특별한 겉옷이나 속옷이 필



〈그림 11〉 Chales VI의 지팡
(Arms & Armour of Medieval Knight, p.79)

요하였다. 겉옷은 금속 갑옷을 보호하거나 눈부심을 막기 위해서 쉬르코(surcot)등을 사용하였고 속옷은 금속 갑옷의 이음부분이 피부를 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몸에 꼭 맞게 누빈 입었다. 이것은 누빈 옷으로 人體曲線에 맞는 옷을 만드는 裁斷方法을 만들어 냈고 十字軍 遠征 時 갑옷 속에 사용하였던 지팡(gipon)이 변형되고 발전되어 14세기 중엽부터는 푸르푸앵(pourpoint)과 같이 軍服에 방호성과 인체의誇張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몸에 꼭 맞는 옷은 입고 벗기 불편하므로 과거에는 없었던 단추를 달거나 끈을 조여서 여미는 방법이 考案되었다(그림 11)³⁶⁾.

중세 갑옷의 특징은 다양한 형태의 금속 갑옷을 사용하였다. 이 시기 유럽의 武器는 활과 槍으로 갑옷은 무기에 對應하여 점점 改善되었다. 初期에는 마주 보고 接戰하면서 槍의 直接的인 打擊을 防禦하기 위하여 쇠조각을 이어 붙여서 만든 타격에 강한 쇠비늘 갑옷을 입었다. 점차 기사들은 市民服이었던 블리오(bliand) 위에 간편한 갑옷(broigne)³⁷⁾과 저킨(jerkin)³⁸⁾을 입거나 쇠사슬 갑옷(chain mail haubert)³⁹⁾을 입었는데 武裝이 안된 옷은 감비손(gambeson)⁴⁰⁾이나 갑옷(haubert)이라고 불렸다. 이 옷은 앞뒤에 트임(stit)이 있어서 탈타기에 편하게 되어 있었으며 이

35) François Boucher, *op. cit.*, p.187.

36) 이정옥 외, 앞의 책, p.123.

37) 프랑크 카롤링 시대부터 입었던 갑옷 이름. 마직이나 질긴 가죽으로 만들.

38) 옷에 뿔이나 금속으로 보강한 남자용 가죽조끼.

39) 7세기경의 아시아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입었던, 못으로 조인 고리와 사슬로 만든 중세의 쇠사슬 갑옷.

40) 가죽이나 누빈 천으로 만든 갑옷용 외투.



<그림 12> 1099년경 쇠사슬 갑옷
(The Crusades and Holy Land, p.37)

때 手帶를 매고 칼은 불리오 위에 찼다.

쇠사슬 갑옷은 12세기 중엽에서 14세기 중엽까지는 입었다(그림 12). 이때는 점차 활을 더 많이 사용하고 칼도 길고 가볍고 예리해지면서 直接的인 打撃을 막아 주는 것보다 넓은 部位를 막아 주는 가벼운 갑옷이 요구되었다. 쇠사슬 갑옷은 이미 1100년경에도 있었지만 十字軍 활동동안 많이 개량되어 다마스쿠스(Damascus)에서 精巧한 옷감을 사용하여 보다 가볍게 만들었으며 갑옷 속에는 충격을 흡수하도록 누비옷을 입었다⁴¹⁾. 또한 작목과 가죽으로 안을 댄 쇠사슬 양말과 장갑도 있다. 이 쇠사슬 갑옷의 형태는 머리와 목을 보호하는 코이프를 형성하였으나 얼굴의 위 부분은 드러나게 되어 있었다. 이 위에 겹을 덧썼는데, 여기에 코 가리개, 나중에는 앞챙 등이 붙게 되어 그 형태가 다양해졌다⁴²⁾.

板金 갑옷(plate armour)은 13세기말 딱딱한 쇠 조각이나 쇠판으로 쇠사슬 갑옷을 部分的으로 보강한 것으로 脆弱한 팔다리 부분에 강철판을 덧 대고 천에다가 쇠조각들을 단 철판 길옷으로 몸통 部位를 보강하여 좀더 防護的인 갑옷으로 만든 것이다(그림 13). 즉, 1250년경 병사들은 무릎과 팔꿈치와 정강이를 보호하기 위한 판금 쇠우개를 첨가해 쇠사슬 갑옷을 개량하기 시작하여 쇠사슬 갑옷을 판금 갑옷으로 바꾸는 것은 1400년경에 마무리되었다. 이어서



<그림 13> 1390년경 판금 갑옷, 이탈리아
(Arms & Armour of Medieval Knight, p.77)

가죽 흉갑(cuirass)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칼을 막을 수 있도록 단단히 만들어졌지만 무거웠고 여전히 허점이 있었다.

全身板金 갑옷(full plate armour)은 14세기부터 개선했는데 이유는 東洋의 영향으로 칼이 길고 예리해졌고 가까이 接戰을 하게 되면서 무기의 날과 끝이 미끄러져서 비껴 가도록 만든 철판 갑옷이 필요하였다⁴³⁾. 특히 裝甲騎兵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全身板金 갑옷을 입었다. 그러나 전신 갑옷은 安全性에 대한 補完으로 機動性의 손실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 전신판금 갑옷은 16세기말까지 귀족이나 기사의 신분 상징용으로 끊임없이 장식되고 개선되어 갔다(그림 14).

中世 後期에는 火藥武器인 총포의 出現으로 防禦的인 갑옷보다는 機動性이 있는 갑옷이 필요하였다. 즉, 火器를 다루기 위해서 가벼운 옷과 體系的이고 持續的인 訓練과 戰術體系의 변화가 필요하였다. 그 결과 中世의 貴族을 중심으로 형성된 騎兵 중심의 戰鬪體制에서 火器를 다루는 步兵 中心의 戰鬪體制가 되면서 戰場에서 기병의 위치와 역할이 약해지고 防禦力이 큰 갑옷보다 機動性을 높여주는 옷으로 바뀌었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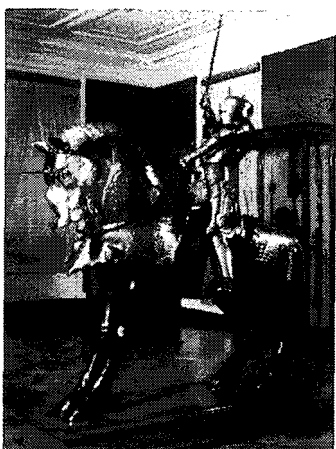
中世 軍服飾의 특징으로 紋章이 있다. 紋章은 십

41) 크리스토퍼 그라베트, 미디어뱅크, 중세의 기사 (서울: 웅진미디어, 1998), p.12.

42) 버나드 로 몽고메리, 앞의 책, p.261.

43) 크리스토퍼 그라베트, 앞의 책, p.16.

44) Eyewitness Visual Dictionaries, Military Uniforms (London: Dorling Kindersley, 1992)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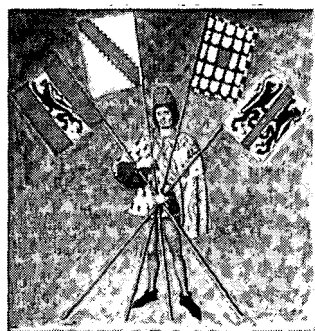
<그림 14> 1460년 St George의 전신판금 갑옷
(Arms & Amour of Medieval Knight, p.110)



<그림 15> 13세기 십자군의 문장
(Arms & Amour of Medieval Knight, p.50)

자군들이 동방으로부터 들여온 習俗으로 회교국의 군주들은 11세기 전에 이미 紋章服을 입었으며 유럽은 13세기경 투구나 방패에다 상징적인 문양을 그려 넣는 일로써 紋章裝飾 및 紋章技術을 동방의 家紋과 결합시켜서 기사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그림 15)⁴⁵⁾.

紋章은 처음에는 각 기사들이 자기 從者들을 불러모으거나 軍隊 整列用으로 고유한 깃발을 이용하



<그림 16> 1450년 Rene 왕의 경기시합 책의 문장
(20000 Years of fashion, p.197)

었다. 또한 이 시대의 투구는 着用者의 얼굴 전체를 가렸기 때문에 신원을 나타낼 표시가 필요하였고 이 투구를 쓴 기사들은 貴族階級이며 12세기 중엽에 이르면서 그들의 身分은 가문의 독특한 表識으로 표현하였다. 紋章服은 騎士들이 갑옷 위에 쉬르코를 입으면서 앞 정면에 紋章을 달았으며, 防牌에도 紋章을 새기고 나중에는 馬上試合을 통하여 확고한 전통이 되었다⁴⁶⁾.

紋章의 流行은 매우 널리 퍼져서 12세기 중엽에는 기사들뿐만 아니라 귀족도 가문의 색으로 만든 軍服이나 배우자 가문의 색에 아플리케나 자수된 문장 문양의 軍服을 갖추고 있었으며 14세기에는 紋章服과 부분적으로 색이 다른 옷이 유행하였다. 이 시기의 紋章은 所屬과 裝飾을 표현하는 手段으로 軍服뿐만 아니라 일반 옷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이 유행은 14세기 초에는 垂直으로 나누어진 옷의 좌우 양측에 다른 색이 들어가는 의복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후, 군인의 制服이나 王室 官僚들의 의복은 君主의 색상이나 도시의 색상으로 만들어졌다(그림 16)⁴⁷⁾.

3. 근 세

1) 15~16世紀

15~16世紀는 영국과 프랑스간에 백년전쟁(1339~1453년)과 영국의 장미전쟁(1455~1485년)등 대규

45) 이정옥 외, 앞의 책, p.123.

46) 버나드 로 몽고메리, 앞의 책, p.237.

47) 이정옥 외, 앞의 책, p.124.

모 전쟁이 계속되었으며 工業技術이 進步하고 物資의 生産과 交易이 활발해지면서 戰爭도 잦아졌고 따라서 더 많은 軍隊가 필요하였다. 또한 封建制度가 붕괴되어 군인은 地方 領主의 私兵이 아니라 國王에게 직접 고용된 常備軍이 되었고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職業인 傭兵들이 그 자리를 메웠다. 傭兵들은 자신들이 武器와 軍服을 所持하였으나 募集된 常備軍은 火器인 총포를 다루는 技術訓練과 制式訓練을 통하여 軍隊 體制로 組織되었다. 또 조직을 統率하기 위한 階級制度가 생겼고, 그에 따라 統一된 軍服이 필요하였다⁴⁸⁾.

이 시기는 금속 갑옷의 절정기였으며 그 外觀이 매우 裝飾적이고 機能性에서도 柔軟性和 防護性을 보강한 全身板金 갑옷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군복은 매우 값진 것으로 전쟁에서 중요한 전리품으로 취급되어 취하거나 다시 나누어 사용하였다. 그러나 火藥 武器로 총포가 개발되어 타격이 커지면서 철판으로 板金の 두께를 두껍게 보강하였으나 이로 인해 機動性을 저해하자 점차 기동성이 좋은 布製 갑옷으로 바뀌었다. 15세기 중반부터 軍服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는데 軍服 變化의 要因 중에 하나는 칼과 창이 길고 예리해지면서 그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즉, 몸에 딱 맞고 창이 빗겨갈 수 있도록 全身板金 갑옷을 보강하였다. 또한 15세기경 重裝騎兵은 판금 갑옷으로 완전히 몸을 감쌌는데 形態와 材質, 제작 기술과 효용성이 極大化 되었다. 基本的인 갑옷 형태에 防護力을 강화하고 保護裝備으로서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장식과 활동하기에도 훨씬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투구를 개선하여 얼굴 가리개 앞에 떨어지는 타격에도 견디도록 하고 가슴 保護帶도 보강하여 침가함으로써 위험한 싸움에서 방어력을 좋게 하였다⁴⁹⁾.

또 다른 변화 요인은 騎兵 중심의 전술에서 步兵 중심으로 변하면서 <그림 17>과 같이 기동성과 기능성을 위하여 가벼운 군복이 요구되었다⁵⁰⁾. 결국 유럽 전쟁에서 화약무기의 實用化로 중장무기와 전신 판금 갑옷을 입은 騎士는 몰락하였다.

금속갑옷 이후 이 시기에는 다시 布製 군복이 사용되었다. 布製 군복은 특별히 군복용으로 의도된



<그림 17> 15~16세기 프랑스 군복
(History of Western Costume, p.36)

것이 아니지만 인류 초기의 자연물 형태부터 섬유와 종류와 성능에 따라서 다양하게 형태를 갖추어 사용하였다.

16세기 중반부터 일부 軍人들은 色으로 統一된 制服을 착용하였으나 階級의 표식을 위한 배지 등은 아직 없고 將校들은 質이 좋은 服地를 사용하고 어깨에 懸章을 사용하여 身分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서부독일 남부의 도시 누른베그(Nuremberg)에서 皇室近衛兵은 붉은 코트를 입었고, 1547년 영국의 잉글랜드 동북부에 있는 노어퍼크(Norfolk) 주의 君主는 그의 병사들에게 붉은 裝飾線을 댄 푸른색 슈트를 주었다. 또 1562년 덴마크에서는 검정색 모자와 코트 그리고 붉은 색 바지를 갖춘 군대를 볼 수 있었으며 制服으로 이런 劃一性을 갖추는 것은 하나의 革新이었다. 이것은 經濟面에서 통일된 軍服을 보다 쉽게 調達할 수 있도록 생산체제를 갖추면서 직물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制度를 갖추어 갔다.

2) 17世紀

17世紀는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전쟁으로 전 유럽이 치열하게 싸웠던 30년 전쟁(1618~1648년)과 영국 내전(1642~1649년) 등이 있었다. 이 시기의 軍服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前 時代의 퍼프와 패드를

48) 플레툰, 1997년 7월호, p.101.

49) Eyewitness Visual Dictionaries, op. cit., p.8.

50) 플레툰, 1996년, 11월호, pp.89-96.

없었고 裝飾과 디자인이 더욱 단순해져서 實用的이고 簡便한 形態로 바뀌었다. 軍服 變化의 要因은 크게 두 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첫째, 이 시기는 富가 蓄積되고 人口가 늘어남에 따라 國력이 증대되면서 대규모 軍隊가 필요하고 각국의 군대는 그 規模가 엄청나게 확장되어 常備軍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대규모의 軍隊를 통솔하고 士氣와 紀律을 維持하는데 필요한 統一된 正規 制服이 필요하였다. 즉 軍制가 傭兵에서 國民兵으로, 槍兵 위주의 전쟁에서 銃兵이 주도하는 전쟁 形態로 바뀌면서 集團으로 銃器를 다루는 훈련과 그러한 상비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軍服이 集團을 統制하는 수단으로 制度化되었다. 한편 階級的 활용을 위해서 肩章을 도입하고 軍紀와 士氣를 위해서 軍服이 장식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17세기에는 대규모 군대의 형성과 그들을 募集, 訓練, 統制, 管理하기 위한 수단으로 軍服은 戰鬥服의 機能性보다는 군대의 象徵性을 나타내는 體制의 軍服이었다⁵¹⁾. 그 결과 다양한 軍服을 標準化시키고 實用性을 위하여 形態를 단순화시켰으며 새로운 무기인 총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볍고 몸에 꼭 맞는 옷으로 변화하였다. 上衣은 胴體의 슬래시나 芯裝飾이 없어지고 領선은 直線이 되고 허리선이 올라 갔으며 앞 중심 銳角이 없어지고 허리의 切開線도 차츰 없어졌다. 上衣 허리가 짧아져서 바지가 많이 보이게 되어 바지에 벨트가 생겼고 바지의 모양이 형성되었다. 또한 統一된 制服이 나타나면서 서로를 區分할 수 있는 標識으로 國家나 聯隊를 象徵하는 여러 形態의 색이 軍服에 나타났다(그림 18).

그 예로 30년 戰爭동안 나라마다 고유한 색의 장식 띠 형태인 각장이 나타났고, 將校들은 이를 허리에 두르거나 왼쪽 어깨에 걸쳤다. 각 나라의 紀章色은 독일의 빨간색, 프랑스는 처음에는 청색이었으나 흰색으로 바뀌고 스웨덴은 청색, 네덜란드는 주황색, 덴마크는 빨간색과 노란색, 황제파는 흰색 리본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한 나라 안에서도 부대에 따라 다른 색의 장식 띠가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찰스 시대(Charles I., 在位 1625~1649년)의 영국과 스페인은 밝은 빨간색 현장을 착용하였으나 영국의 內戰동



<그림 18> 17세기 전기의 군복
(History of Western Costume, p.53)

안 王黨派와 議會派로 나뉘어 싸운 전쟁터에서 그들은 복장이 비슷하였기 때문에 장식 띠의 색으로 구분하여 왕당파는 빨간색을 사용하였고 의회파는 주황색을 사용하였으며⁵²⁾ 그들이 입었던 빨간색 상의는 19세기말까지 영국의 軍服으로 사용되었다⁵³⁾. 신병들도 그들 固有의 象徵物들을 착용하였는데 독일인들은 모자 주위에 흰색 리본을 메었고, 스웨덴인들은 한 움큼의 꼬리로 된 꽃무늬 휘장을 달았으며, 덴마크인들은 흰색 종이 꽃잎을 꽃았고 오스트리아인들은 모자에 나무 잎을 꽃기도 하였다. 이런 식의 구별은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필요하였던 조치였으며, 후에 유니폼이 생기면서 이 착상은 널리 확산되었다.

3) 18세기

18~19世紀 전반 나폴레옹이 출현하기 전까지 근 150년 간은 전 세기의 치열했던 전쟁의 반작용으로 직접적인 실제 전투는 피하면서 과시적인 전쟁을 하였다. 즉, 17세기의 宗教的 狂信과 19세기의 民族主義的 狂信 사이의 이 시기는 王朝 間의 葛藤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군대는 戰爭技術의 限界가 있었고 특히 전쟁에 熱情이 없었다. 병력은 貴族과 浮浪者들의 志願者로 충원되었고, 일반국민들은 國防義務에 무관심하므로 최소한의 能力을 培養하고 脫糞을 예방하기 위한 고된 訓練과 紀綱과 嚴格한 規則이 필요하였다.

51) 버나드 로 몽고메리, 앞의 책, pp.378-382.

52) Eyewitness Visual Dictionaries, op. cit., p.16.

53) 버나드 로 몽고메리, 앞의 책, p.413.



<그림 19> 1720~1780년경 프랑스, 스위스 병
(History of Western Costume, p.53)

그러나 18~19세기의 軍服은 華麗하고 裝飾의이며 군대의 상징성이 최고로 꽃 피었던 시대로 당시 영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프로이센, 러시아 등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결같이 빨간색이나 밝은 녹색, 청색 등의 산뜻한 原色으로 軍服을 만들었고, 금실로 장식된 요란한 肩章과 각종 裝飾物로 裝飾한 華麗한 軍服을 입었다. 모자는 한결같이 높다랗고 흰 깃털 장식이 달려 있었으며, 가슴에 두른 폭이 넓은 X자형의 밴드 등은 機能의이고 實質의인 戰鬪服과는 거리가 멀었다(그림 19).

18세기의 군인들이 이처럼 화려하고 장식적인 軍服을 입었던 것은 技術的, 社會的, 戰術的인 원인이 있었다⁵⁴⁾. 첫째, 기술적인 면은 유럽의 殖民地 政策은 衣料 製造業 分野에서 값싼 원료의 수급을 좋게 하여 纖維産業이 발달하고 新技術과 기계들이 발명되어 大量生産을 할 수 있었고, 18세기 초에는 染料의 품질 개선으로 화려한 색채의 직물을 이용한 軍服을 입을 수 있었다.

둘째, 社會的인 면은 募兵 手段으로 軍服을 利用하였다. 18세기까지 유럽에서 義務 兵役制를 실시한 나라는 거의 없으나 16세기 이후 交易 규모가 커지고 殖民地 개척이 활발해지면서 전쟁의 규모도 커져갔다. 따라서 專門的인 군인집단으로 국가 상비군이 필요해졌으나 兵役義務가 制度化되어 있지 않았고

국가의 公權力이 약하기 때문에 強制的으로 徵集할 수가 없었다. 국가가 군대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화려한 軍服은 展示效果로써 지원자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⁵⁵⁾.

셋째, 戰術的인 면은 武器와 戰術 運用 방식에 그 원인이 있었다 화려한 원색의 軍服은 적의 눈에 잘 띄게 되어 誇示와 警告의 效果를 기대할 수 있었다. 18세기에 사용된 前裝式⁵⁶⁾ 총은 적 앞에 露出된 채로 서서 裝填을 해야 하고, 發射 후, 再裝填을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상대적으로 병력이 많거나, 병사들이 화기를 능숙하게 다루어야만 적의 사기를 꺾을 수 있었다. 原色 軍服은 눈에 잘 띄고 擴張되어 보이므로 我軍 숫자가 더 많아 보이는데 效果的이었다. 또한 강한 原色 軍服은 銃劍으로 肉薄戰을 하며 양군이 뒤엉킨 혼전 속에서 彼我를 區別하는 手段이 되었다⁵⁷⁾.

이 시기 軍服에 대한 劃期的인 변화는 프로이센의 전술이 채택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라이플총을 사용하면서 妨害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였으며 결국 軍服을 輕量化하는데 기여하였다. 舊式 襠스토 코르는 점차 짧아졌고, 그 위에 입었던 짧은 상의(basques)의 길이는 길어져 이를 다시 뒤로 접게 되었는데, 결국 이 부분은 잘려지게 되었다(그림 20). 코



<그림 20> 1775년 미국 독립전쟁의 영국군
(Eyewitness Visual Dictionaries, p.20)

54) J.Anderson Black & Madge Garland, op. cit., p.22.

55) 플레톤, 1997년 7월호, pp.101-105.

56) 총구를 통해서 총탄을 장전하는 방식. 총길이가 150cm내외로 장전을 하기 위해서 서서하여야 하였다.

57) 플레톤, 1996년 11월호, pp.8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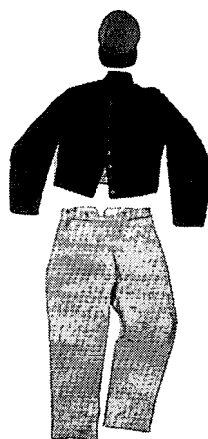
트는 점점 몸에 꼭 맞게 재단되었으며, 장식은 줄어드는 반면 주머니들이 늘어났다⁵⁸⁾.

軍服에서도 목에 두른 스카프인 크라바트(cravate) 대신에 레이스와 마슬란을 썼으며⁵⁹⁾, 假髮은 군인들에게 거주장스러웠으나 戰鬪用 假髮과 旅行用 假髮 등 가발의 사용이 絶對인 것으로 여겨졌다⁶⁰⁾.

4. 군 대

1) 19세기

19世紀의 전쟁은 현대전의 전초전으로 볼 수 있다. 크리미아 전쟁(1853~1856년)에서는 전시대의 군복식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미국의 남북전쟁(1861~1865년)이후부터는 이미 화려한 원색의 군복이 없어졌다. 이것은 전 세기의 과장과 경교의 전쟁 형태와 달리 총신이 작아지고, 후장식(後裝式)⁶¹⁾과 연발식으로 은닉이나 위장이 필요하고 전투복은 보호색을 쓰는 것이 안전하게 되었다⁶²⁾. 그러므로 종래의 密集 行進을 하는 전투대형이 사라지고, 步兵들이 隱匿한 상태에서 사격을 하는 各個戰鬪 방식으로 바뀌자 원색의 軍服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따라서 彼我間에 서로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이런 점에서 칙칙한 땅색과 비슷한 카키색 전투복은 偽裝效果가 높고 흙먼지와 같은 색으로 더러움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편리하였다⁶³⁾. 이 카키색 軍服은 19세기말부터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초기까지 디자인이 약간씩 달랐을 뿐, 거의 전 세계 군대가 입게 되었다. 이 카키색 軍服은 영국군이 처음 입었는데 이러한 보호색이 쓰여진 것은 인도의 펀잡(Punjab)주에 駐屯하고 있던 영국군이 1846년 처음으로 위장이 필요하게 되어 당시 자신들이 주둔하고 있던 더운 기후 지역에서 쉽게 입수할 수 있는 綿織物에 흙의 색을 착안하여 製作하였던 것이 시초가



<그림 21> 1870년대 영국군의 카키 군복
(Eyewitness Visual Dictionaries, p.34)

되었다⁶⁴⁾. 실제로 착용한 것은 1848년 인도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의 將兵들이었다. 이것은 덥고 땀이 많이 나는 인도에서 두꺼운 모직물로 만든 빨간색의 華麗한 軍服보다 착용과 관리 면에서 매우 편리하였다. 비교적 얇은 면직물에 現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카키색 염료로 염색한 열대용 軍服은 의외로 인기를 얻었는데, 그 후 19세기말 부터 제 1차 세계대전, 제 2차 세계대전 초기까지 불과 20년 안에 디자인이 약간씩 달랐을 뿐 전 세계의 모든 군대가 입게 되는 일대변혁을 맞게 되었다(그림 21). 카키색 전투복이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된 것은 1899년부터 1902년까지 계속된 보어(Bore)전쟁⁶⁵⁾이다. 19세기 유럽 군복의 형태는 나라마다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군대에서는 사소한 전통의 수용이나 단결심 등에서만 차이를 보였을 뿐 군사제도 체제는 유럽의 모든 나라가 비슷하였다.

결국 18~19세기 軍服은 軍服史의인 면에서 가장

58) François Boucher, *op. cit.*, p.330.

59) James Laver, *op. cit.*, p.116.

60) 위의 책, p.122.

61) 탄환을 총 뒤쪽에서 장전할 수 있는 방식. 1886년 사도아 전투에서 프로이센군이 사용함.

62) 폴래튼, 1997년 8월호, pp.99-105.

63) 폴래튼, 1997년 8월호, pp.99-105.

64) 김화선, “우리 나라 軍服史의 고찰”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78.

65) 1652년 이후 네덜란드의 이민(Bore)들이 남아프리카에 삶의 터전을 개척하면서 금과 다이아몬드의 광산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영국이 이곳에 진출하려고 하자 벌어진 전쟁.



<그림 22> 대한민국 육군사관생도 복장
(플래툰 1999년 11월, p.15)

멋있고 화려함의 정점에 있던 제1차 세계대전 중반을 기점으로 거의 모두 카키색의 단순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 일부분은 正服이나 禮服으로 그 傳統을 전승하고 있다. <그림 22>와 같이 오늘날까지 전 세계 士官學校의 생도들이나 의장대 등이 행사때 착용하는 예복은 거의 예외 없이 이 18~19세기 나폴레옹 시대의 軍服을 본 뜬 것이다⁶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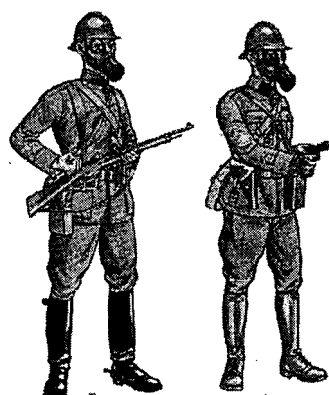
5. 현 대

1) 제1차 세계대전

제1차 世界大戰은 포격과 독가스로 막대한 사상자를 내면서 性能 좋은 기관총의 殺傷力로 인하여 騎兵이나 步兵이 塹壕 속에 숨어서 싸우게 되는 교착 상태의 참호전쟁으로 변화하였다⁶⁷⁾. 제1차 세계대전 중의 軍服은 참호 속에서 장기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 시대의 正裝 形態의 원색 軍服은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전쟁 기간 중에 作業服과 같이 機能적이고 실용적인 카키색 軍服으로 바꾸었다. 대전의 초기 많은 나라들이 울긋불긋한 原色의 전투복을 그대로 입은 채로 전쟁을 시작하였으나 채 일년도 지나지 않은 1915년 무렵에는 軍服을 새것으로 교체



<그림 23> 1914년 프랑스 보병
(Le Uniform Delle Due Guerre Mondli, p.7)



<그림 24> 1918년 방독면을 한 병사들
(Le Uniform Delle Due Guerre Mondli, p.48)

하지 않을 수 없었다(그림 23, 24). 즉, 제1차 세계대전은 軍服의 發達史에도 革命的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군복의 형태는 과거의 화려하고 멋스러운 군복에 비해 풍성하게 만들어서 활동하기 편할 뿐만 아니라 장기전으로 병영을 떠나 있는 동안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기 위하여 주머니를 많이 달았다. 이는 塹壕戰과 野戰으로 長期戰을 해야 하는 戰爭 樣相에서 활동성을 좋게 하고 野戰에서 필요한 所持品을 裝備하

66) Herbert Knotel Jr & Herbert Sieg, *Uniform of The World* (London: Arms & Armour Press, 1986), pp.434-435.

67) 플래툰, 1995년 7/8월호, pp.98-106.

기 위하여 作業服 형태의 옷이 필요하였다. 트렌치 코트(trench coat)는 제1차 세계대전이 塹壕戰으로 장기화되면서 두꺼운 모직물로 防寒·防水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런 軍服의 변화 이외에도 개인 裝備面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구식장비와 크게 달라진 점이 세 가지 있다.

첫째,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軍服의 변화 이외에, 個人 裝備面에서 많은 양의 실탄을 소지하기 위하여 彈藥帶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였다. 구식의 어깨띠 대신에 허리에 매는 벨트류와 이와 연결되는 서스펜더(suspender)⁶⁸⁾가 액세서리로 첨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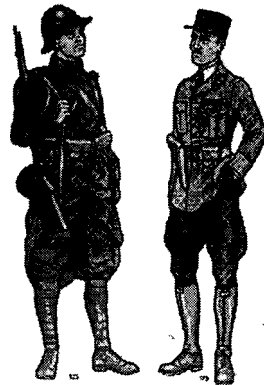
둘째, 鐵帽의 보급으로 고대 전투에서 打擊을防禦하기 위하여 사용되던 철모가 現代戰에서 銃彈의防禦를 위하여 새롭게 활용되었다. 이러한 現狀은 방어 수단의 限界라는 意味가 있다. 가장 먼저 實用적인 카키색 전투복을 만들었던 영국군도 開戰 초기에는 철모를 쓰지 않고 피크 캡(peak cap)이라고 하는 정모 형태의 형묘 모자를 쓰고 있었으나 소총과 대포가 더욱 精巧해짐에 따라 총탄에 머리를 貫通당하거나 포탄의 破片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더욱 늘어나고, 전쟁이 점차 가열되어가면서 모든 군대는 철판으로 만들어진 철모를 만들어 쓰게 되었다.

대체로 큰 전쟁이 끝난 후에는 戰勝國의 裝備나 服裝이 유행처럼 널리 퍼지는데 프랑스의 승리로 이프랑스군의 헬멧은 전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장비 중의 하나가 되었다⁶⁹⁾.

셋째, 전혀 새로운 장비로 防毒面이 個人 裝備로 정착되었는데 1915년 이프르(Ypres) 전투에서 독일군이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영국도 단시간에 5백만 개나 되는 防毒面을 만들어 다른 聯合軍까지 援助해 주었고, 이때부터 가스 마스크라는 장비가 새로이 병사들의 個人 裝備 目錄에 追加되었다.

2) 제2차 세계대전

유럽은 1918년 제1차 世界大戰이 끝나고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39년까지 20년 간 전후 복구와 세계적인 공황으로 군비를 재정비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군복도 거의 별다른 변화 없이 제2차 세계



<그림 25> 1939년 프랑스 군복
(Le Uniform Delle Due Guerre Mondli, p.69)

대전의 開戰을 맞았다.

開戰초에 각 국의 군복은 제1차대전 당시의 카키색 군복을 그대로 입었으며, 여전히 멋과 권위를 상징하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전투를 위한 특수복이라는 개념이 약했고, 일상복의 디자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방독면과 위장술에 대한 개선이 있었다(그림 25)⁷⁰⁾.

그러나 제2차 世界大戰을 겪으면서 진행된 軍服



<그림 26> 영국 초기 공수부대복장
(플래툰 1995년 1월, p.12)

68) 많은 실탄을 휴대하기 위하여 벨트에 연결한 탄창대.

69) 플래툰, 1997년 8월호, pp.106-112.

70) 버나드 로 몽고메리, 앞의 책, pp.758-826.

의 변화는 첫째는 便利하고 實用的인 면을 추구하는 디자인으로 변화되었으며, 둘째는 偽裝(camouflage) 무늬를 實用化시켰다. 이러한 배경은 신종 군대인 공수부대의 출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공수부대는 고공에서 낙하산으로 적지에 투입되어야 하고, 은닉된 채로 활동을 하여야 하므로 효율적인 낙하 장비와 위장과 방호를 위하여 특수한 전투복이 필요하게 되었다. 공수부대의 낙하용 위장무늬 군복은 空輸部隊의 特殊한 임무에 맞게 개선된 형태였으나 점차 군복으로써의 기능성이 인정되어 일반군대의 군복으로도 보급되었으며 군복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그림 26). 그밖에도 大戰 중에 獨逸, 英國, 프랑스, 美國, 구 소련은 戰場에 맞는 實用的인 軍服을 開發하여 야전 재킷(field jacket) 및 防寒服, 戰鬪靴, 헬멧 등을 改善하였다. 특히 미국은 기능성을 최대화시킨 다양한 군복을 개선하였다. 2차 대전이후 세계는 미국 중심의 西方體制와 구 소련 중심의 체제로 軍服도 兩大 體制로 대별되었다.

3) 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세계질서를 개편하여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와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로 나뉘어지고 냉전체제로 들어섰으며, 軍備·戰略에 경쟁적으로 돌입하였다. 각종 무기는 물론 군복도 보다 기능적이고 위장과 전투력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전투복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전후 초기에는 대전 중에 독일군의 이미지가 강한 위장무늬는 양 진영에서 모두 배제되었고, 소련군은 대전 중에 입었던 카키색 군복을 입었고, 미군은 대전 말기에 입기 시작한 짙은 녹색의 군복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 후 1960년대까지 약간의 디자인의 변화가 있었을 뿐 카키색과 녹색의 단색이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었다.

現代戰에서 베트남 전(Vietnam war)과 中東의 걸프전(Gulf war)에서 軍服의 變化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베트남 전에서는 열대용 위장무늬와 소재의 개발이 있었으며 위장무늬와 더불어 풀 컬러(full color)⁷¹⁾로 되었던 마크(mark)류가 서브듀드(subdued)⁷²⁾



<그림 27> 1969년 위장무늬 복장
(플래툰 1997년 9월, p.78)



<그림 28> 베트남전 마크의 서브듀드
(플래툰 1997년, p.77)

로 바뀌었다(그림 27, 28). 한편 군화도 열대용으로 개선되었다. 걸프전에서는 사막용 위장무늬의 개발과 야간 전투 위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결국 두 전쟁을 통하여 偽裝 軍服의 最첨단 科學化가 이루어졌고 주위 環境과 境界線이 없는 軍服을 만들기 위하여 계속해서 신소재, 새로운 무늬, 染料 開發 등을 추구하고 있다.

III 군복의 素材

1. 가죽

人類가 사용한 保護甲 材料로 가장 긴 역사를 지

71) 군장류에 화려한 원색의 실로 刺繡함.

72) 군장류의 모든 마크를 녹색 바탕에 점정색 단색으로 수를 놓아 식별을 어렵게 한 것.

닌 것은 동물 가죽이다. 가죽은 보온성과 방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고대부터 일상복 뿐만 아니라 軍服에서도 중요한 재료로 이용되어왔다. 금속 갑옷이전에는 투구와 갑옷이 가죽 형태 그대로 활용되어졌는데 북유럽의 초기 종족들은 가죽을 이용하여 몸에 꼭 맞는 갑옷, 머리 보호대를 만들기로 하였다. 가죽 갑옷(leather armor)은 가죽을 불에 쪼이거나 무두질을 하여 두텁게 만들고 合板처럼 여러 겹 붙여서 만들었다. 때때로 뼈나 이빨을 메달아 效果的인 갑옷을 만들기도 하였다. 海岸 지역의 인디언들은 바다 사자의 가죽으로, 에스키모인은 동물가죽에 고래뼈를 이용하여 갑옷을 만들었다. 필리핀인은 물소뿔을 이용하여 갑옷을 만들었고 큰 저북이의 등껍질로는 方牌를 만들었으며 가시물고기의 살을 이용하여 투구를 만들었다⁷³⁾.

중세에는 金屬 갑옷을 만들 때, 처음에는 필요한 부분을 가죽으로 연결하였고 갑옷 속에 흉갑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17세기의 저킨은 여러 종류의 동물 가죽을 이용하여 만든 간편한 가슴 보호장구로 애용되었다. 18세기 이후 軍服이 포제의 통일된 복장으로 바뀌면서 보호용 갑옷으로는 활용범위가 적어졌으나 가방, 벨트, 구두에는 가죽의 강하고 부드러운 특성을 살려서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2. 金屬

1) 갑옷

靑銅器 時代부터 人間의 일반 生活用具뿐만 아니라 武器, 갑옷 등에 금속이 사용되었다. 금속도 갑옷의 방호적인 면에서 가장 좋은 素材로 인간이 최초로 사용한 金屬은 구리이다. 그 구리에 주석을 섞어 靑銅을 만들어 B. C. 3000~2000년경에 靑銅甲冑를 만들었다⁷⁴⁾. 그 후 人間은 B. C. 2500년경 鐵을 發明하였고, B. C. 700~500년경에는 鐵甲冑를 만들어 입었다. 金屬 保護甲에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는 銅과 鐵중에서, 銅은 어떤 自然的인 보호갑옷보다 우수한 것이었으나, 軟한 금속이었기 때문에 상대의

강한 加擊을 견디려면 두꺼워야 했고, 이 때문에 무게가 대단히 무거웠다. 반면, 鐵은 防護甲으로서 훌륭한 조건은 구비하였으나 다루기가 어려웠다.

鐵甲이 實用化 된 것은 B. C. 700~500년경이고, 鐵甲이 銅甲을 完全히 壓倒하는 시기는 紀元 후 초가로 추정한다. 金屬材料가 보호갑으로 效果的인 이유는 첫째, 강하다. 둘째, 신체에 완전히 맞출 수 있다. 셋째, 外觀이 좋고 필요에 따라 사지를 방호할 수 있도록 고안, 설계할 수 있다. 넷째, 威嚴과 눈부심으로 視野에 障礙를 줄 수 있는 光澤을 낼 수 있다는 것 등이다. 금속으로 製造한 보호용 갑옷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투구(冑)였다. 現存하는 투구의 제작 연대는 B. C. 3000년~2000년경이다. 그러나 신체 부위에 대한 금속 보호갑은 투구의 출현보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다음인 B. C. 1700년경에 나타났다.

비늘 갑옷은 最初의 金屬 갑옷으로 수메르인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진 케이프형이었다. 갑옷 형태는 가죽옷에 수백 개의 작고 둥근 금속조각을 생선의 비늘처럼 엮어 만들었다. 이 갑옷은 柔軟性이 크고 금속의 보호막을 제공해 주었다⁷⁵⁾. 초기 鐵器時代의 바늘 갑옷은 조끼형으로 삼각형이나 직사각형의 鐵板을 連結시켜 製作하였는데 가장 큰 단점은 무게였다. 결국 冶金術의 발달과 보조를 맞추면서 활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패가 훨씬 커졌고 동시에 새롭게 개선된 鐵製 갑옷이 登場하였다. 무기가 加擊을 가하는 창이나 도끼 등으로부터 예리한 칼이나 화살로 대치되면서 그에 대응하여 보호막의 形態도 改善되었다.

쇠사슬 갑옷은 世界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가 사용되었고 優秀性을 인정받은 보호갑으로 중세 초기에 개선되었다. 이것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서아시아 지역에서 B. C. 300~200년경에 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쇠사슬 갑옷은 冷却效果, 柔軟性, 가벼운 무게, 防禦能力이 좋아서 10~13세기에는 유럽에서 매우 인기가 있어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를 쇠사슬 갑옷시대라고 부른다. 쇠사슬 갑옷 한 벌은 20만개 정도의 고리가 사용되어 완성되

73) Harold L. Peterson, *History of Body Armor* (New York: Scribner's Sons, 1968), pp.9-14.

74) 王宇清, 中華民國 56, 「中國服飾史綱」, 臺北, 中華大典編印會, p.93.

75) Collins, *A History of Warfare Field-Marshal Viscount Montgomery of Alamein Collins* (London: St Jame's Place 1968), p.36.

기 때문에 상당한 작업시간, 기술, 노력 등이 소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전 지역에서 이천여 년의 기간동안 엄청난 양의 쇠사슬 갑옷이 제작되었으며 이 갑옷이 大量生産된 가장 큰 이유는 效率性 때문이었다⁷⁶⁾. 전체 무게가 약 9kg을 약간 상회하면서 대단한 柔軟性을 지녔고 通風이 잘 되고 防護面에서도 卓越한 能力을 지니고 있어서 劊이나 短刀, 또는 화살을 차단할 수 있었으며 속에는 폭신하게 보호되는 옷을 입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창에 의한 심한 加撃이나 短刀, 화살에 의해서 고리의 끝이 잘 분리되어 쉽게 부상을 입게 되어 板金갑옷에 비하여 效能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결국 戰士들이 쇠사슬 갑옷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13세기경에는 고대 사기에 사용하였던 쇠비늘 형태를 개선한 板金 갑옷이 재등장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이 갑옷을 착용한 마지막 전투는 1898년의 미·서(Spanish-American war)전쟁이었다⁷⁷⁾.

판금 갑옷은 14세기 중엽부터 쇠사슬 갑옷을 대신하게 되었다. 병사들은 쇠사슬 갑옷의 무릎과 팔꿈치, 정강이 부분에 판금 쇠우개를 첨가하여 개량하였다. 처음에는 가슴부위에 칼을 막을 수 있도록 단단하고 앞·뒤판의 이음새가 있는 胸甲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점차 개선되어 얇고, 많은 조각이 서로 맞물려서 몸을 완전히 덮는 형태로 방호면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졌다. 이 판금 갑옷은 새로운 보호갑으로 形態美, 威嚴, 目的의 適合性이 매우 우수하였다. 鎗劊의 타격을 막아 주면서 柔軟性이 있어서 착용자는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었다. 즉 무릎을 굽히거나 걷거나 뛰거나 눕거나 말 등에 올라 탈 수도 있어서 戰士의 모든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그 무게도 20~30kg 정도로서 현대 병사들의 完全軍裝에 비교하여도 무겁지 않았고 익숙해지면 행동에 거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

전신판금 갑옷은 重裝騎兵 시대로 불리는 15세기 초부터 약 3백년간 착용하였는데 16세기에는 아주

정교하여 완벽한 경지에 이르렀다⁷⁸⁾. 이 갑옷은 타격이 많은 부분은 두텁게 하고 타격이 적은 부분은 얇게 하여 무게를 줄였다. 처음에는 고딕양식처럼 끝부분들을 뾰족하게 하여 線의 장식으로 아름다움을 강조하였으나 점차 맥시밀리안(Maximilian)이라는 등글고 평평한 곡선의 갑옷으로 바뀌었고, 환상적인 디자인이나 아름다운 표면 장식은 매우 인기가 있어서 퍼레이드나 儀式用으로 착용하기도 하였다⁷⁹⁾. 騎兵 자신은 물론 말까지 전신을 중무장하였다. 이는 擊破와 防護에는 效果的이었으나 戰術上의 柔軟性에는 커다란 장애 요소였다. 또한 전신판금 갑옷은 熱을 발산할 수가 없어서 추운 날씨에도 몸을 흘릴 정도였다. 柔軟性이 없고 또 火器의 사용 및 火器의 힘과 활용 범위가 증가되면서 이러한 화기를 휴대하고 조작하여야 하는 軍人의 갑옷으로는 착용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불편하였다. 그러므로 폐속과 유연성이 기병들에게 요구되자 전신판금 갑옷은 중장기병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전쟁 사가들은 1346년의 영국군과 프랑스군과의 크레시(Crecy)전투를 重裝騎兵의 시대에서 다시 보병의 시대로 전환하게 한 분수령적인 전투로 보고 있다⁸⁰⁾.

결국 전신 판금 갑옷은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쇠사슬 갑옷과 綿甲(cotton armor)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점차 보호갑의 역할에 따라 무게를 줄이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정강이 보호대를 없애고, 팔 부위, 허벅지 부위가 짧아지다가 나중에는 없어졌으며, 가슴과 등 부위는 오래 지속되었지만 짧아지다가 차츰 없어졌다.

1690년까지 일부 병사들이 갑옷을 착용하기는 하였으나 판금 갑옷이나 전신판금 갑옷은 더 이상 보호갑이 될 수 없었으며 투구나 신체를 부분적으로 방호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일부 유럽의 기병대는 항시 흉갑(breast-plate)과 등받이(back-plate)를 착용하였다. 대포와 권총이 사용되면서 전신 판금 갑옷의 사용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며 제1

76) Collins, *op. cit.*, p.24.

77) Harold L. Pesterson, *op. cit.*, p.32.

78) George Cameron Stone, *A Glossary of the Construction · Decoration and Use of Arms and Armor in all Countries and in all Times* (New York: Jack Brussel Publisher, 1961), p.30.

79) Harold L. Pesterson, *op. cit.*, p.53, 60.

80) Collins, *op. cit.*, p.54.

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대부분 사라졌다. 결국 흉갑과 투구만 남게 되었다⁸¹⁾.

이상과 같이 금속은 防護性이 좋기 때문에 청동기 이후부터 무기와 갑옷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특히 중세에는 금속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다양한 금속 갑옷이 발전했던 시기였다. 初期의 금속 갑옷은 쇠비늘 갑옷으로 直接的인 打撃에 效果的이었다. 쇠사슬 갑옷은 활과 칼이 예리해지면서 무게가 가볍고 넓은 부위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되었으며 中世 騎士의 威嚴을 나타내고 鎗과 檢에 對應하여 效果的이었다. 판금 갑옷은 쇠사슬 갑옷을 부분적으로 보완한 것이고, 전신판금 갑옷은 防禦와 威嚴을 최대한 살린 반면 機動性에 脆弱했던 형태였다.

<표 1>은 금속갑옷을 정리한 것으로 특히 중세에는 제조 기술과 디자인이 발달하여 보호갑으로 뿐만 아니라 신분을 표현하고 위엄을 표시하였다.

2) 투 구(Helmet)

투구는 모든 공격이나 타격,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 주었다. 투구가 가장 먼저 등장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머리이므로 戰士들이 적과 기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호적인 이유이며, 둘째, 머리는 신체의 최상단부에 위치하여 상대의 눈에 제일 먼저 띄는 부분으로서, 장식하기에 좋고 피아모두에게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식물을 부착하여

<표 1> 금속 갑옷의 변천

시 기	지 역	형 태	대응무기	장 · 단점
B. C.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인)	원형 조각 비늘형 케이프	투창, 찌르는 창	타격이 큰 무기에 효과적임
B. C. 1580년경	이집트 신왕국	사각 조각 비늘형 케이프	창, 칼, 활	타격이 큰 무기에 효과적임
B. C. 1000년경	아사리아	등근 형 비늘형 케이프	창, 칼, 들팔매	타격이 큰 무기에 효과적임
6 세기 후반	프랑크	짧은 외투형	긴칼, 창	비싸고 무거 대응력이 좋아서 높게 평가
7 세기	비잔틴	소매 없는 짧은 튜닉형	가벼운 창, 칼, 도끼	가벼운 소재에 비늘 부착으로 가볍고 유연함
10 세기	영 국	장식용 쇠비늘 형태 튜닉형	투창 찌르는 칼 양날 검, 도끼	부유층 기사의 신분 과시용 가볍고 기동성이 좋음
12 세기	유 럽	쇠사슬 갑옷과 겸용. 무릎, 양손까지 사용	활, 짧은 창, 검	타격이 큰 무기에서 기동성과 타격범위가 늘어난 화살로 보호범위가 넓어짐
13 세기	유 럽	전신 쇠사슬 갑옷	짧은 창, 활, 검	가볍고 유연함
14 세기	유 럽	전신 쇠사슬과 가슴어깨, 등 부위 판금 갑옷	창, 검	가볍고 특정부위 보호강화
15~17 세기	유 럽	전신 판금 갑옷, 인체부위별 보호대 연결	긴 창, 외날 칼	전신 방어 효과, 기동성 문제

81) George Cameron Stone, *op. cit.*, p.32.

나타내기에 좋은 위치이기 때문이다. 즉, 투구의 높다란 꼭지점과 휘날리는 말갈기 등은 전사들의 키를 높여 주었고, 위엄을 풍기게 하였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머리에 대한 보호와 장식을 위하여 투구를 이용한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투구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는 투구의 원래 목적을 위하여 재료와 형태면에서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외관으로 더 강하고 전투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의 장식을 붙이기도 한다.

투구는 재질에 따라서 가죽과 금속, 직물로 만든다.

투구의 起源은 소아시아의 초기 종족인 히타이족의 유물에서 볼 수 있다. 이 투구는 처음 이천년동안 원추형으로 귀 보호대의 깃털장식이 뒤로 늘어뜨려져 있는 형태였다. 그 후 천년동안은 볼 보호대를 착용하였는데 깃털이나 말 머리카락으로 앞 쪽이 장식을 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히타이족에 의해서 B. C. 15세기경 미케네인에게 전해졌고, B. C. 8세기경에는 아시리아 기병의 머리장식에서 볼 수 있으며, 나중에는 아오니아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고대 그리스 장갑보병들도 원추형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⁸²⁾.

그리스는 볼 보호대(cheek-guard)가 있는 투구를 B. C. 8세기 이전에 이미 사용하였고, 코린트식 투구는 B. C. 8세기경에 처음 만들어져서 B. C. 7세기에는 눈과 입 부분만 드러나고 다른 부분은 거의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우아한 모양이 되었다. 로도스(Rhodes)와 크노서스(Knossos)에서 출토된 검은 도기(black-figure)의 그림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 투구는 이러한 모양에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B. C. 5세기경의 붉은 도기(red-figure)그림에서는 볼 보호대와 코 부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앞부분은 띠모양의 장식(projecting band)으로 강화시킨 것이 보인다. 이들 도기의 부조를 보면 피리지안 캡(Phrygian cap)으로 알려진 중절모 모양의 투구 형태도 볼 수 있다. 그리스 사람들은 투구대신에 때때로 가죽모자

또는 두건(kyne)을 썼는데 이것은 하류계층에서 많이 사용하였으며, 원래 보이티아(Boeotia)지역에서 유래하여 주로 전투에서 사용하였다.

<표 2>와 같이 대체로 청동기 시대부터 병사들은 방호용 금속투구를 썼으며, 중세에는 얼굴과 목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투구가 크게 바뀌었다. 가장 무겁고 큰 것은 나무통 모양의 큰 투구인데, 싸우지 않을 때에는 말안장에 걸쳐놓고 다녔다. 중세 후기에는 '배시넷'이라고 하는 나사와 쇠사슬로 만들어진 투구를 몸통 갑옷에 고정하였고 얼굴가리개가 달린 투구는 머리 부분을 회전시킬 수 있었다⁸³⁾.

한편, 유럽문화의 초기에 북유럽인들이 썼던 원시적인 가죽 캡에 금속을 씌워 투구로 발전하였다. 그것은 후에 머리 전체를 덮는 철제 헬멧의 모형이 되었다. 이 투구는 완전히 금속으로 이루어졌는데 두 개의 뿔과 작은 톱니와 턱 보호대가 있는 머리 부분은 금속으로 장식되고 볼과 목 보호대는 꼭 맞는 가죽 캡으로 덮여졌다. 이 투구는 8세기 무렵부터 나타나서 초기에는 지휘관만이 사용하였으며 지중해 주변국에서도 발견되었다⁸⁴⁾. 페르시아 지역의 철모(kulah khud)는 눈과 목을 보호하고, 금속으로 된 코 보호대와 갑옷 휘장(aventail)이 있다. 철모와 그밖의 다른 형태의 군용 모자는 명예의 표상인 깃털장식과 도가머리, 국가의 휘장 그리고 다른 상징물로 아름답게 꾸며지곤 하였는데 중세에는 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헬멧 꼭대기에 깃털이나 보석을 박은 백로 깃털로 장식을 하였다. 이것은 신분표식용으로 문장 장식이나 단순한 장식의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⁸⁵⁾.

17세기부터 강철투구는 대부분 가죽, 낫쇠, 펠트나 모피 등으로 만든 전투모로 바뀌었다⁸⁶⁾. 17세기 중엽 이후, 점차 총기의 성능이 개선되면서 전사들은 다시 머리 부분 보호에 신경을 쓰게 되어 삼각형의 철제 투구가 등장하였으나 이 투구는 탄환을 막기에는 부족하였고 군도(軍刀:saber)가 기병의 가장 중요

82) François Boucher, *op. cit.*, p.67.

83) François Boucher, *op. cit.*, p.85.

84) *Ibid.*, p.127.

85) Eyewitness Visual Dictionaries, *op. cit.*, p.18.

86) *Ibid.*, p.22.

<표 2> 금속 투구의 변천

연 대	분 포 지 역	형 태	재 질	부가보호대	장 식
B.C. 2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원추형	청동	귀가리개	깃털 큰 2개의 뿔장식
B.C. 1500년경	이집트	원추형, 쇠비늘형	청동	목 보호대	청색, 뿔장식
B.C. 8세기	아시리아	원추형	청동 · 철제	코 보호대	말머리형 말털 장식
B.C. 8세기	그리스(코린트) 아테네식	머리 전체를 감싸는 형 얼굴 전면이 나옴	철제	코 보호대가 없음	뒤 부분에 창
B.C. 6세기	페르시아	반원형	철제	코, 볼 보호대	말머리형 말털 장식
1 세기	로마	청동	청동	목, 볼, 이마, 귀, 목 보호	말머리 형 긴 깃 털장식
유럽 초기	북유럽	미트르형 콘형, 돔형	가죽 금속+가죽	턱, 목, 볼 보호대	8세기 유럽의 헬멧 모델이 됨 금속장식
8 세기	서유럽	후두형, 코이프형 헬멧 원추형, 구형	철제 가죽, 철제	볼, 턱 보호대	뿔 장식
중세 초	북유럽 바이킹, 노르만	철제 원추형	철제	코 보호대	술 달림
중세 중	서유럽	사슬형 원추형→포트형	철제 강철	머리부위 통나무형과 헬멧에 귀, 목, 얼굴 부위 사슬 보호대	술 달림, 문장, 깃털, 보석
중세 말	서유럽	얼굴 전체를 가리고 경첩을 달아 열었다 닫음	가죽 놋쇠 펠트	숨구멍, 눈구멍 목 가리개	문장
현재	세계 전역	프랑스 식 독일 식 미국 식	강철 포제 방탄 플라스틱	목, 귀 부분	위장무늬

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보호감으로는 충분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즈음에는 투구의 필요성이 거의 없어져서 천으로 만든軟한 모자(soft hat)나 베레모와 같은 민간인의 모자 스타일에 군용으로 적합하도록 깃털을 장식하고, 휘장과 표식을 추가하여 점차 군용으로 널리 사용하였다.

이때는 軍服에서 모자는 군대의 전통을 표현하거

나 차용하는 한 부분으로써, 예를 들면 프랑스 나폴레옹 1세 시대의 槍騎兵의 사각형 꼭대기 모자(czap-ska)는 일찍이 용맹을 떨치던 폴란드(polish) 기수의 투구를 과장하여 그 형태를 차용하였다⁸⁷⁾.

투구의材質이 바뀐 것은 白兵戰에 의하여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던 전쟁에서 총가를 사용하면서 機動性이 요구되자 軍服 및 모자가 가벼운 布製로 바

87) James Laver, *op. cit.*, p.137.

뛰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重砲와 小火器의 발달되면서 금속으로 제작된 모자(metal helmet)를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프랑스군이 제일 먼저 彈丸防止用 투구를 사용하였으나 효용성은 거의 없었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獨逸軍이 사용한 귀를 덮는 형

태의 투구가 전쟁기간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후부터 다시 철모를 사용하였는데 고속탄환을 막아낼 수는 없었으나, 파편이나 수류탄, 또는 권총의 彈丸 혹은 유탄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세계의 군대는 이러한 帽子에 대한 오랜 진행 과정

<표 3> 布製 軍服의 變遷

연 대	지 역	형 태	소 재	길 이	색 상	장 식
B.C. 3000년	이집트	노출이 많고 땀뻗함	마	요의 형태로 짧다	흰색	
B.C. 2000년 ~ B.C. 8세기	메소포타미아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술아 달린 튜닉형 짧은 소매	모, 마, 면	상류: 발길이 군인: 무릎	빨간색, 파란색, 녹색, 보라색 등 밝은색	술의 장식 수직, 점무늬
B.C. 6세기	페르시아	바지, 튜닉 캔디스	모, 마, 면	상류: 발길이 군인: 무릎	빨간색, 파란색, 녹색, 보라색 등 밝은색	술의 장식 수직, 점무늬
B.C. 5세기	그리스	키톤, 튜닉 클라미스	모, 마	무릎	흰색, 파란색, 장미색, 검정색	동양의 영향 으로 자수 장식
B.C. 4세기	로마	금속갑옷 속에 짧은 튜닉, 가죽 앞가리개, 바지	모, 견, 마, 면	허벅지 길이 짧은 튜닉	흰색, 회색, 검정색	앞가리개에 달린 신분표 사용 금속허리띠
중세	유럽	갑옷 속에 신 체 보호용 면 갑이나 누번옷 직물옷→사슬 갑옷→판갑옷 순서로 입음	면, 모, 견	길이가 김	녹색, 빨간색, 파란색 등 문장색 등으로 화려함	단에 선 장식, 문장과 파티 칼라로 장식, 단추사용
근세	유럽	신체에 꼭 맞 는 긴 코트	양모, 견, 면, 고급복지	무릎길이	회색, 흰색, 갈색	러프, 슬래시, 자수, 금, 은, 견사 스팽글
근대	유럽	남성 정장형	모직, 계급별 服地 차등	초기: 무릎길이 후기: 발목길이	화려한 다양한 색,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녹색	장식 띠와 색 으로 부대, 국 가 표시
현대	전 지역	위장, 작업복	면, 화학섬유, 방수, 방한 등 기능성이 요구되는 직물	상의는 허리속에 바지는 군화 속에 넣어 야전에서 기능적으로 관리.	녹색, 갈색, 검정색, 베이지색	품이 넓어지고 주머니가 많아짐 다양한 군장 이 장착됨

을 거쳐서 제2차 세계대전에는 그물 망 鋼鐵 鐵帽과 같은 순수한 기능적인 전투용 철모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 후 위장술이 필요해지면서 防彈效果和 위장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전투용 모자가 개발되었다.

철모는 <표 3>과 같이 대체로 청동기 시대부터 병사들이 방호용으로 쓰였으며 군복이 布製로 바뀌면서 布製 모자가 다양하게 쓰였으나 다시 총포의 방어를 위하여 철모가 사용되었다.

투구는 防護와 軍裝으로 必須의이다. 투구의 사용은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나 軍裝으로 갖추어 軍服과 함께 일습이 되면서 裝飾의인 면이 강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形態, 材質의 변화가 다양하였다. 주로 防護의인 측면이 강한 것은 가죽과 금속재료로 만들어진 투구 형태이고 裝飾의인 면이 두드러진 것은 頭巾에서부터 帽子까지 布製로 되어졌다.

3. 布 製

氣候와 環境에 의해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衣服의 材料는 軍服에서 그 特性을 評價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대 軍服은 귀족이나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階級の 뚜렷한 구분 없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文化가 발달함에 따라 階級別로 區分이 생겼으며 활동하는 範圍와 活動量에 따라 材質이 달라졌고, 色相의 區分과 種類가 多樣해졌다.

고대 이집트는 기후가 덥고 건조하므로 옷이 단순하고 노출이 많으며 꼭 맞는 옷보다 헐렁한 의복을 입었으며 주로 亞麻를 사용하였다. 亞麻는 染色이 힘들기 때문에 흰색이나 자연색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흰색의 아마로 만든 腰衣를 입었고 屬國의 병사들은 地域에 따라 아마, 모, 면의 체크무늬나 天然染色을 한 것을 입었다⁸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시리아 및 페르시아 軍服을 보면 材質은 毛織物, 麻, 인도에서 들어온 綿, 중국에서 輸入한 실크 등이 있었다. 色相은 빨간색, 파란색, 녹색, 보라색 등 華麗한 色相을 사용하였다.

그리스는 地域에 따라서 형태 및 착용법뿐만 아니라 材質과 色相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스파

르타(Sparta)의 도리아(Doria)식 복식은 開放的인 民族의 의복으로 實用的인 두꺼운 毛織物을 주로 사용하였고, 이오니아(Ionia) 복식은 麻 種類를 주로 사용하였다. 또 儉素함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色相도 단순하고 素朴한 색을 사용하면서 다채로운 色相을 渴望하여 파란색, 흰색, 붉은 장미색, 검정색 등을 사용하였다.

로마는 自然色의 羊毛을 주로 사용하였다. 차차 변성하여 의복의 材質은 麻, 毛, 絹, 綿뿐만 아니라 麻와 毛, 絹과 麻의 交織등 다양하게 변하였다. 一般兵士의 衣服은 單色을 사용하였으나 凱旋 將軍이나 皇帝의 公服, 貴族의 빨간색이 있는 보라색 布에 金絲로 刺繡한 端이 화려하게 장식되기도 하였다. 흰색의 麻나 毛가 軍服에서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기도 하였다.

중세에는 十字軍에 의해 실크 織物과 머슬린(muslin)이 유럽으로 들어와 豊富한 직물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時代의 중요한 材質은 가죽이며 프랑스의 플랑드르, 영국에서 織造된 스코치 울(scotch wool), 동양과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실크, 그리고 13세기에 시작되어 파리에서 직조한 벨벳 등도 있었다.

중세의 軍服은 방호와 위엄을 위하여 금속 갑옷이 주를 이루었으나 금속 갑옷을 보완하기 위하여 補助的인 옷이나 裝飾的인 용도로 다양한 소재의 직물이 활용되었다. 지팡이나 푸르푸앵, 슈르코는 裝飾과 防護面에서 중요한 옷이었다.

14세기에는 伸縮性이 있는 쇠사슬 갑옷이 판금 갑옷으로 보완되면서 금속판 갑옷의 날카로운 모서리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병사들은 갑옷 속에 누비옷을 입었다. 이 옷은 삼을 넣고 누빈 것으로 안감은 質이 좋은 굵은 마직물이었다. 앞 중심선은 트고 단추가 연속해서 달려 있으며 몸에 꼭 맞게 裁斷되었다.

장미전쟁(1455~1485)때는 처음으로 戰鬪時의 機能性을 考慮하여 比較的 高級服地로 制服을 만들어서 군인들이 입기 시작하였다⁸⁹⁾. 이로써 高級服地는 一種의 階級表示用으로 指揮官이나 兵士가 비슷한 形態의 옷을 입을 때 服地의 質로 身分을 標示하였

88) 이남희, “고대 이집트 복식에 대한 연구,” 한성대학 논문집(3)(1979), p.124, 최영숙, 앞의 글, p.47에서 재인용.

89) 김지영, “밀리터리 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7.

다.

16세기에는 軍服도 誇張된 스타일로 러프, 슬래시, 모피의 사용, 레이스, 刺繡 등이 활용되었고, 자수법의 발달로 금사, 은사, 견사, 스팅글(spangle)을 이용하여 軍服이 화려해졌다⁹⁰⁾. 그러나 16세기말에는 大砲와 小銃 등 火器의 발달로 금속의 투구나 갑옷은 완전히 사라지고 활동하기에 편리한 布製 군복이 정착하였다.

1600년대 이후 군인들의 制服이 漸進적으로 規格화된 布製 軍服으로 變化되었으나 프랑스 軍服을 보면 1660년대까지도 규정한 재복이 없고 군인은 武器와 軍隊 裝備들에 의해서 一般 市民과 區別될 수 있었다⁹¹⁾.

18세기의 産業革命은 織物産業의 活性化를 가져왔고 東方과의 활발한 무역과 物理·化學의 發達로 染料의 질이 좋아지고 染色 技術과 漂白技術이 발달하여 직물이나 의복의 色彩 調화가 세련되어졌다. 따라서 각 국은 나라별, 부대 단위별로 직물과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하면서 軍服도 화려해졌다⁹²⁾. 1750년대 프랑스 軍服은 모직으로 된 긴 코트와 긴 소매 블라우스, 조끼, 반바지와 스타킹이었다. 군복은 유니폼으로 같은 장식과 색깔이었으나 장교는 옷감의 질이 더 좋았으며 고위 장교들은 옷의 색깔과 모양, 장신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93,94)}. 1755년 영국의 경우, 步兵의 옷은 標準化되었다. 빨간색으로 무릎 길이의 긴 없는 외투로써 넓은 앞단이 있었으며 전투나 추운 날씨에 대비하여 더블 여밈으로 단추를 채울 수 있었다. 옷자락의 끝은 군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훅(hook)으로 잠갔다. 영국 군대의 빨간색 외투는 거의 한 세기의 반 동안 규정된 옷으로 자리잡혔으며 군복의 형태는 비슷했지만 장교는 옷감의 질이 더 좋은 것으로 구분하였다⁹⁵⁾.

1890년대부터 유럽 각국에서 카키색의 綿織 軍服

이 나타났다. 색깔 있는 毛織으로 만들어진 男性정장 스타일의 군복은 이미 여러 번의 實戰에서 전투복으로 適當하지 않다는 것을 經驗하였지만 계속 사용되었다. 그것은 유럽의 軍制가 국가 統合軍 體制라기보다 각기 獨自인 聯隊 체제로써 부대마다 나름대로 傳統과 自矜心이 있었기 때문에 軍服의 統一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제1차 세계대전 중반 모든 軍服이 카키색으로 바뀌기 이전의 각 국의 군대는 각 부대마다 軍服의 形態, 色相, 裝飾, 素材 등이 너무 다양하여 그것들을 이루다 細分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⁹⁶⁾. 제2차 세계대전까지 유럽 대부분의 군대는 軍服으로 모직을 사용하였으나 전투 영역이 다양한 기후대로 넓어지면서 면직이 많이 사용되었다. 오늘날은 기능적으로나 관리면에서 성능이 좋은 섬유를 개발하여 軍服에 적용시키고 있다.

布製 軍服은 특별히 軍服用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지만 인류 초기의 자연물형태에서부터 섬유의 종류와 성능에 따라 다양하게 형태를 갖추어 사용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 布製 군복은 織物 素材의 多樣性和 使用의 편리함 때문에 中世의 금속 갑옷을 제외하고는 古代로부터 現代까지 가장 다양한 활용과 발전이 있었다.

IV. 結 論

軍服에 대한 時代的인 특징은 고대에는 軍服과 一般 服飾의 區別이 없었다. 중세부터는 봉건제도의 계급구조에 따라서 지배 계층을 중심으로 화려한 금속 갑옷이 입혀졌다. 17세기부터는 상비군 제도에 의해서 재복이 입혀졌고 18~19세기 이후에는 군사상 가장 화려한 군복이 입혀졌다. 19세기 후반 이후 현재까지는 軍隊의 機能性에 따라서 군복이 입혀졌다.

90) 신상옥, 앞의 책, p.135.

91) Jack L. Summers & Rene Chartrand, *op. cit.*, p.8.

92) 신상옥, 앞의 책, p.135.

93) Jack L. Summers & Rene Chartrand, *op. cit.*, p.12.

94) *Ibid.*, p.16.

95) *Ibid.*, p.44.

96) Jack L. Summers & Rene Chartrand, *op. cit.*, p.80.

常備軍으로 制服(uniform)이 입혀지기 전에는 一般 兵士의 軍服은 매우 劣惡하고 統一되지 않았다. 兵士들의 軍服은 각자 準備하거나 征服地에서 掠奪 등으로 해결하였고 傭兵들은 스스로 軍服과 武器를 갖추었다.

軍服의 發展은 國력이 강한 國家거나 戰爭을 主導하는 나라를 中心으로 시작되는 경향이 있었다.

군복은 武器의 發達 즉 타격무기, 활, 예리한 칼, 창창, 화약무기인 대포, 전장식, 후장식, 연발식 등에 따라서 변화되었으며, 戰爭의 形態인 고대의 밀집대형, 중세를 비롯하여 17세기까지는 요새 중심의 城郭戰, 18세기 이후 나폴레옹 시대 露地戰, 제1차 세계대전 塹壕戰, 제2차 세계대전은 육, 해, 공군의 全面戰, 현대의 技術戰 등과 白兵戰, 心理戰, 情報戰 등의 양상에 따라서 軍服이 變化되었다. 미래의 軍服은 다양한 武器開發 및 戰術, 戰略의 發展에 따라서 연구와 開發이 필요하다.

本 研究의 結果를 기초로 하여 軍服에 관한 研究를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軍服은 役割과 機能의 特性이 多樣하므로 앞으로의 研究는 陸軍, 海軍, 空軍, 女軍 등 軍種 및 兵科別이나 禮服, 正服, 戰鬪服 등의 用途別이나 帽子, 軍靴 등의 着用 部位別로 細分하여 좀더 깊이 있는 後續 研究가 필요하다.

둘째, 未來의 軍服은 科學技術에 따른 尖端 武器의 開發과 그에 對應하여 持續적인 變遷이 있을 것이므로 科學적이고 效率적인 軍服을 開發하기 위하여 軍事學과 連繫된 研究가 필요하다.

셋째, 軍服의 사회적, 기술적 측면의 變遷要因과 一般 服飾과 相互間의 影響에 대하여 有機적인 研究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時代的 範圍를 넓게 함으로써 地域別 特性 및 時代적으로 細分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지 못하였다.

둘째, 現場 踏査나 實物을 직접 접하지 못하고 博物館 展示資料, 文獻資料, 寫眞資料를 중심으로 制限的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分析과 考察에 아쉬움이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단행본>

- 강정식 (1995). *세계문화사*. 서울: 형설출판사
國防軍事研究所(1997). *韓國의 軍服發達史 I*. 군인공제회 제1문화사업소.
김영권 (1984). *戰爭史*. 서울: 형설출판사.
申尙玉 (1990). *西洋服飾史*. 서울: 수학사.
柳喜卿 (1975). *韓國服飾史 研究*.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사.
陸軍本部 (1980). *陸軍服制史*. 서울: 陸軍本部.
陸士 (1977). *韓國軍事研究室 韓國軍制史*. 육군본부.
이정옥 외 2인 (1995). *新稿 西洋服飾史*. 서울: 형설출판사.
정홍숙 (1995). *복식문화사*. 교문사.
조규화 (1995). *服飾辭典*. 서울: 경춘사.
조상철 (1982). *세계사 대사전*. 서울: 민중서림.
車河淳 (1995). *西洋史總論*. 서울: 탐구당.
車河淳 (1995). *육군 복제사*. 육군본부.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한국의 역사*. 서울: 삼화인쇄주식회사.

<국내문헌-논문>

- 김지영 (1997). "밀리터리 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진 (1985). "전쟁이 서양 여성복식에 미친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승은 (1983). "사회계급별 복식에 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은영자 (1982). "十字軍 遠征時 西歐의 服飾에 관한 考察." 啓明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이유미 (1996). "군복의 이미지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영숙 (1988). "군복식에 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번역서>

- Arther Frill (1990). *전쟁의 기원*. 인간사랑 학술총서 29. 이춘근 역. 서울: 도서출판 인간사랑.
Blanche Payne (1994). *복식의 역사*. 이종남 외 3인역. 까치.
Carl von Clausewitz (1978). *戰爭論*. 世界思想全集 46. 金洪喆 譯. 서울: 三省出版社.
Dorling Kindersley (1998). *비주얼 박물관 1권~60권*. 서울: (주)웅진미디어.

- J. Anderson Black · Madge Garland (1997). *세계패션사*
I. 윤길순 역. 자작아카데미.
- John Keeghen (1996). *세계전쟁사*. 유병진 역. 까치.
- Lawmoe Langner (1992). *복장의 심리*. 박동준 역. 유신
문화사.
- TIME, LIFE 제2차 세계대전 1권~30권 (1988). 한국일
보 타임-라이프.
- 버나드 로 몽고메리저 (1999). *전쟁의 역사*. 승영조 역.
책세상.
- <기타>
-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1983). 서울: 동아출판사.
-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 사전 (1993). 서울: 브리태니커.
동아출판사.
- 세계대백과사전(1994). 학원출판공사.
- 陸軍士官學校 博物館(1992). 육군박물관도록. 陸軍士官
學校.
- 전사 제2차 세계대전 실록 1권~6권(1974). 중앙문화사.
- 패션 투데이. 패션정보사. 1~72권, 1990~1996.
- 플래툰. (주)호비스트. 1995.1~2000.2.
- 한국일보사 (1983). "인간세계사-고대 그리스·로마
제국." 라이프. 서울: 한국일보사.
- 홍은표 (1998). 전쟁기념관 도록. 태광문화사.
- <외국문헌>
- 丹野 郁 (1985). *服飾의 世界史. 資料篇*. 東京: 白水社, .
日本官報. 陸軍服制 勅令 第 10號.
- 齊藤忠植·穂積和夫 (1971). *世界の 軍服*. 東京: 圖書刊
行會.
- 佐藤今朝夫. 20世紀初頭世界の軍服. 東京: 婦人書報社,
昭和59.
- 太田臨一郎. "職能服의 變遷-陸軍." 東京: 被服文化, No.
68. No. 69. 昭和 36.
- 太田臨一郎. 日本の近代の軍服史. 東京: 雄山閣. 昭和
47.
- DK & 同朋舎出版編輯部 (1994). *軍服-Military Uniform*.
東京: 同朋舎出版.
- DK & 同朋舎出版編輯部 (1997). *戰歴*. 東京: 同朋舎出
版.
- DK & 同朋舎出版編輯部 (1992). *服飾*. 東京: 同朋舎出
版.
- Ales et Philippe Care Tanneur. *Uniforms des Regiments ae
France*. La Bibliotheque des arts, 1983.
- Anderson Black & Madge Garland. *A History of Fashion*.
London: Orbis Publishing, 1980.
- Auguste Racinet (1987). *Racinet's Full-Color Pictorial
History of Western Costume*. New York: Dover, Inc.
- Blanche Payne (1965). *History of Costume*. N.Y.: Harper
& Row.
- Boucher Francois (1987). *20,000 year of fashion*. New
York: Harry N. Abrams, Inc.
- David Edge & John Miles Paddock (1988). *Medieval
Knight*. London: Bison Group.
- Eyewitness Visual Dictionaries (1992). *Military Uniforms*.
London: Dorling Kindersley.
- Georges Tate (1996). *The Crusades and The Holy Land*.
New York: Harry N. Abrams, Inc.
- Harry Rinker & Robert Heistand (1993). *World War II
Collectibles*. The Apple Press.
- Hilary Stephens (1992). *Military Uniforms*. Dorling Kinder-
sley. London.
- Jack L. Summer & Rene Chartrand (1981). *Military Uni-
forms in Canada*, NMC.
- John Moilo (1992). *Military Fashion*. Barr.
- L. Sachse & Co. *Full-color Uniforms of the Prussian
Army*. Dover, 1981.
- Lloya, Mark (1988). *Modern Combat Uniform*. Brian
Trodd Publishing House Ltd.
- Mark. M. Boatner (1956). *Military Custume and Traditions*.
New York: David Mikay Company.
- Maurer (1978). *The U. S. A it service in World War I*.
Office of Air Force History.
- Molle John (1972). *Military Fashion*. London: Barrie &
Jenkins co.
- Peter F (1976). Copeland. *American Military Uniforms*.
Dover.
- Yannis Milonas (1978). *Le Uniformi Delle Due Guerre
Mondali*. Italia: Storia Illustrata.